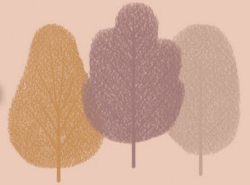


# 2019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주제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일시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14:00~18:00

장소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대강당

주최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입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1월,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라는 제하에 한국청소년 활동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함께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준비전반을 위해 힘써주신 권일남 회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윤나량, 김영애 박사님,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사)더나은 세상 염진수 이사장님, 영신초등학교 고승은 교장선생님, 디지털서울문화대학교 최영창 교수님과 주제별 토론을 맡아주신 조미란, 이미자, 지세선 선생님과 종합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2012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척박한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들은 현장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의 마중물로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난 8년간 청소년 활동영역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미래 지향적 청소년 활동정책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학회와 함께 해 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청소년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미래의 자산으로서 다양한 활동역량을 지닌 청소년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환경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청소년의 요구와 니즈에 맞는 활동의 제공,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

런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 활동환경 조성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된 시설환경 구축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중심에 청소년활동학회의 비전과 사명과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현재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 활동의 위축과 정책적 흐름에서의 소외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시대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을 읽어 낼 수 있는 경험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 연구 과제의 발굴과 수행,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청소년활동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활동정책의 제시, 그리고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등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술적 역량을 두루 갖춘 청소년활동학회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활동학회가 우리 사회에 청소년활동의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청소년 활동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보며 청소년이 보다 행복한 활동 정책적 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 Contents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	1
권일남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 >> 발제

I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	25
발제자 염진수 ((사)더나은세상 이사장)	
II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	43
발제자 고승은 (서울 영신초등학교 교장)	
III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	57
발제자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 >> 토론 .....

	67
--	----

I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	69
토론자 조미란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관장)	
II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	73
토론자 이미자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사무처장)	
III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	79
토론자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본부장)	



# 제2019년도 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제 1 부 개회식

14:30 사 회 윤나량(학회학술분과)  
개회사 권일남 학회장  
축 사 송병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단체사진촬영

## 제 2 부 기초발제

15:00 주 제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주제발제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휴 식

## 제 3 부 발제와 토론

사 회 김영애(학회운영분과)  
좌 장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 발제 1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 발제자 염진수 ((사)더나은세상 이사장)  
▪ 토론자 조미란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관장)

~  
17:00 발제 2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 발제자 고승은 (서울 영신초등학교 교장)  
▪ 토론자 이미자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사무처장)

발제 3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 발제자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본부장)

## 종합토론 및 폐회

17:00 종합토론 및 결론도출  
▪ 진 행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폐회 및 인사





#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권 일 남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 1. 청소년활동의 문제인식과 고민의 출발점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현 시점에서 재해석해 보면서 청소년활동이 차지하는 위치, 비중 등이 어떠한 수준에서 강조되고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제도화가 이루어진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영역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동력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힘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점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경우 스스로 지각하는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축소되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엇이 또는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를 재해석해 보아야 한다.

초기 청소년활동의 근원적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청소년정책에서 활동의 위치나 기능적 성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 상당히 감성적인 표현을 표출하기도 하고, 과거의 영화를 찾을 길이 없을 까 고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20년전과 청소년활동의 위치가 청소년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소년활동에 대해 영욕이 교차되는 아쉬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실패와 제도의 문제로 귀결해 버리는 점을 통상적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청소년활동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톱니바퀴가 어긋남없이 한치의 착오없이 맞아 떨어질 때 더 큰 발전과 변화의 기대감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정책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를 것이라는 점은 큰 오산이다. 정책과 제도가 수반되어질 때 이를 현장에서 굳건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바탕의 틀이 온전하고 또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명료해야 재생산하는 명분이 만들어 질 수 있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활동의 추진과 전개에 대한 현장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과거만 못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과거에 비해 정형화된 이론적 근거와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 나아가 청소년활동의 출발점에서 보았던 수련활동 중심의 요소<sup>1)</sup>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집단에서 소집단, 개인의 역량중심, 자율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이나 의미는 모호하여 상호동의를 쉽지 않은 점도 커다란 문제이다.

1)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의 의미에 대한 부정성이 크지만 출발당시는 수련활동을 통한 인내, 통제, 협력, 극기 등의 현실적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학교와 사회 모두의 긍정적 동의를 통한 합의였기에 청소년활동의 출발점에서의 필요성으로 나무랄 데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수련활동의 가치가 시대의 흐름을 추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과거 청소년기본법시대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던 시절에 비해 더 나은 구조와 제도적 체계를 구성하고자 추진한 2004년 이후의 더 나은 변화로 성장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문제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에 수궁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활동의 외형적 성장이 멈춘 한계가 내부적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 외부적 환경영향 때문인지를 좀더 정확하게 가려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의 방향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sup>2)</sup>.

## 2. 본질의 의미와 청소년활동 본질찾기의 출발점

청소년활동도 성과나 가치지향성면에서 어떠한 사물이나 실체와 같이 명확한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을 것이다. 또 그 가치는 불변할 수도 있고 때론 변화하더라도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본질은 변화가 없되 변화를 추구하려는 방향성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도 하다.

본질의 추구라 함은 어떠한 물체나 비물체적 존재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라면 경험하는 특정 사안이나 사물 또는 모든 사상에 대해서 본질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본질의 추구나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은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이자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물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태가 있던 없던 일정한 형태나 양식으로 해석하여 사물이 본성을 가진 어떤 것 즉 사물의 존재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사물의 존재라는 것을 실체화되어져야 하고 물상화하는 것은 비물질적 형태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된다<sup>3)</sup>. 다만 본질의 논의를 철학적 관점에서 중시하였던 것은 인류의 생존과 존재가 무엇이여야 하는 지가 출발점부터 관심사였을 것이다.

본질에 대한 철학적 존재론(Ontology)에서 인간은 존재론에 관한 물음이며(N. Hartmann, Zur Grundlegung der Ontologie(1935), 4 Aufl. Berlin 1965. 장지훈, 2002:1 재인용),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노력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꾸준하게 이어 왔다.

2) 청소년활동의 성장세가 약화되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본 논고를 이끌어 나가는 개인적 판단이다. 다만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의 예산 감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저하, 사회환경의 악화로 인한 활동의 보편적 부정성 증대(각종 안전사고, 가족간 여행 확대 등으로 인한 체험기회 증대, 수련활동에 대한 자기주도적 목표 상실 등)로 인해 최근 상대적 악화가 커지고 있는 점으로 판단하였다.

3) 4차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나를 규정하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피적 선언에 집중하게 된다. 물론 더 나아가 최근은 5차산업혁명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회혁신의 근본에는 사람의 능력이 중시되고 그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은 본질이 된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기 어려워니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의 선언적 의미로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존재론의 형식과 방법에서 플라톤(존재와 비존재의 변증법), 아리스토텔레스(형이상학적 존재와 본질), 토마스아퀴나스(신과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사유), 하이데거(존재자의 인식에 대한 사유), 파르메니테스(존재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사유 즉 이성)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의 관점과 특질에 대한 설명을 현학적이자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을 하였다.

그런데 본질과 존재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각에 대한 공통점은 절대자로서의 존재 그리고 이를 통한 진리의 발생, 숨어있지 않음 등을 표방하였던 점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또는 이를 지배하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조망하였던 것이다.

즉 본질을 찾는 의미가 다르지만 찾으려는 형식이 예술작품에서는 건축으로, 미술로, 음악으로 구현되면서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예술은 비록 감각적인 가상이나 표현으로써 상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진리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다양하게 측정하게 만든다.

예술에서도 본질을 증시하는 이유는 사물이나 의식화되는 어떤 존재의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의 경향성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여지는 분명히 많다. 거리에 서 있는 나무의 본질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한다면 그 나무가 주는 의미나 가치를 가구화되는 물상화현상, 열매나 가지가 주는 의미와 가치의 특징 등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나무라는 본질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은 존재나 비존재냐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심연의 문제라고 말하며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자, 신, 신과 인간, 삶 등의 의미를 찾는데 이들과의 관계성을 알려는 노력에 대한 점이였다. 사실 절대적 요소로서 본다면 비물질적 본질에 대한 생각을 사유의 관념으로 정의하기에는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종 해석의 비논리성이 논리성의 형식으로 포장되어졌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누가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동의와 비동의 그리고 존재에 대한 많은 사유를 한 점에서 물아일체를 이루고 동시에 이를 구체적인 사물성으로 현현되어 진리가 일어남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함이 특정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이라는 의미에 대한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변화나 구성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몇가지 가설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첫 째,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놀이와 여가인가 아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가치나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이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둘 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무엇을 얻고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가? 아님 그 자체인가?

셋 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성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판단한 준거와 상호 청소년지도자간 합의 가능한 기준 등은 존재하는가?

넷 째,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섯째, 청소년지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 메시지를 청소년들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동의하는가?

여섯째, 최근 강조되는 청소년중심, 청소년자율과 참여 등의 의미에 대해서 지도자는 어떠한 생각으로 임하는가?

일곱째,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창의적 사고 및 행동, 미래사회의 변화에 주도하기 위한 힘 등을 실제 활동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매개체를 활용하기 위한 지도자의 역량은 충분한가?

사실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논하게 되면서 안고 있는 몇가지 의구심과 문제요인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앞서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다. 물론 실제 현장과 학계에서 이러한 고민의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시도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와야 할 것을 함께 주문하면서 고민의 출발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활동되게 하는 것이라면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활동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특성을 보인다. 여기서 청소년과 활동은 단순히 등가의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존재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의 도구나 수단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에게 부여된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가만히 있어도 성장과 성숙은 자연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의 의미가 내버려 두어도 되는 성질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본질적 의미로서 지향해야 하는 것은 교육으로서의 의미, 지도로서의 의미 등이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에서 의미하는 청소년의 균형성장이라는 용어로 통칭되어졌고 일반화의 의미로 활용되어졌다고 보여진다.

청소년의 균형성장 의미는 청소년이 곧 사회적 질서와 제도를 준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사회적 틀을 정립해 나감을 의미하며 청소년은 기성세대가 구성해 놓은 틀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짐을 말하기 때문에 이를 매우 보편적이면서 지극히 형식적인 틀로 설명되어짐을 의미한다<sup>4)</sup>. 그래서인지 균형 성장에 자율, 참여, 독립, 적극 등 자

4)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 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는 시도가 편하다. 예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는 PISA나 다른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문제의 부각을 열심히 해내곤 한다. 공동체성이 낮다거나 창의적 행위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제에는 마치 공동체성을 갖지 못할 경우 부적응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 제시된다. 하지만 청소년입장에서는 굳이 같이 살아야 하는 힘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이 얼마나

기표현의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년의 지식의 확장, 실제 상황의 유용성, 참여적 행위 등의 모든 요소를 한마디로 균형성장이라는 의미로 축약하여 설명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균형성장의 의미는 다원적이고 실체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질의 거리찾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한계로 설명하기도 한다<sup>5)</sup>.

그렇다면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의 의미분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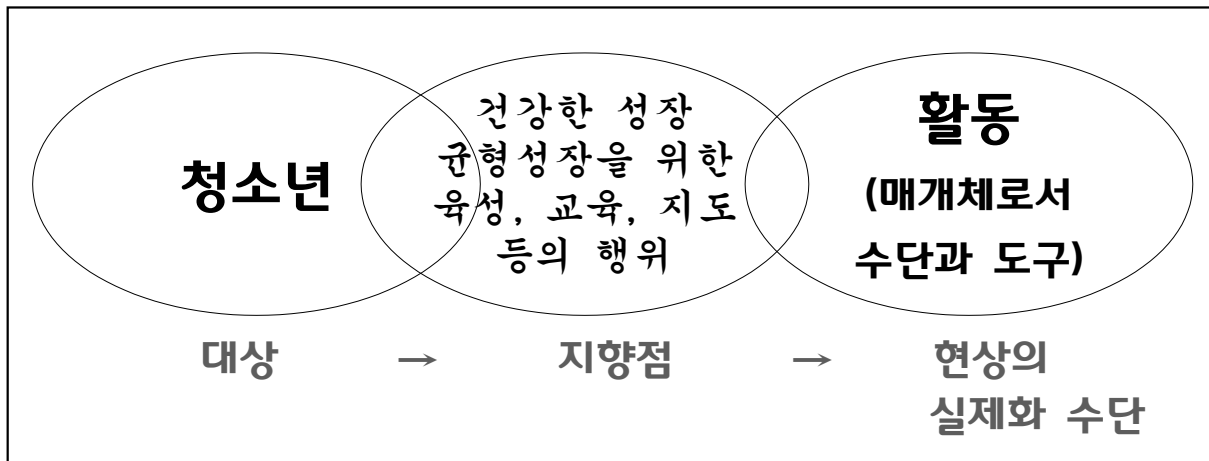
곧 청소년활동이라는 점은 청소년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필요한 행동적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적 체험요소를 말한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위한 지식을 습득할 때 지식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경험적 참여기회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의 체득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지식의 확장성을 이루어 실제 생활에 유용하도록 살아있는 지식을 만드는 경험적 지식의 확장을 활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이룸이 목표이기는 하나 균형성장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형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활동이라는 요소가 지향하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적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해 주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매우 미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다면 청소년활동의 본질은 자꾸 형태와 도구 그리고 방법에서 찾으려 하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이 양적인 수단에만 국한되는 오류를 당연시하게 된다<sup>6)</sup>.

---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 조직에서 선임자나 간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공동체성인지 아님 조직의 문화를 준용함이 바람직한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조직내에서 회식과 공동체 문화를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평가를 내리는지의 불편함을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 5) 균형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정의라는 점이다. 어른의 요구, 기성세대의 지향점, 기존 사회질서의 순응적 태도 등을 마치 정상적 범주로만 이해하려는 포지티브(positive)사고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표현에는 창의적, 자발적, 주체적, 도전적, 차별적, 상대적 사고의 의식은 상당히 표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특수한 상황을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에 운전시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대체로 행정상 제한이나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기도 하고 규제기관의 경우 행정비용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적 사고는 허용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한다.
- 6) 마치 어떤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가보면 높은 신 분들의 축사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칭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정부인사, 행정요원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관점에서 첫마디가 청소년문제라고 말하며 출발을 한다. 아마도 이는 본인이 청소년들은 문제가 있는 대상이며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함을 부각하고자 함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야말로 자신이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임을 전혀 모른다는 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다.



[그림1] 청소년과 활동의 관계성과 의미

그렇다면 청소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자율적이어서 하고 주체적이어서 하며 능동적이어서 함으로 일단의 명제를 정한 후 유도한다는 점이 또 가능한 일이지는 한 것인가의 고민도 남는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뇌리속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이들을 매개화시켜주는 각종 활동의 전문적 행위 자체를 놓고서 마치 적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주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 속에 포함되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능력(일견 개인이 살아가도록 하는 힘으로 포장된 어떠한 용어)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고 오류도 본질찾기를 저해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 3.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

무엇이든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헤겔이 주장하였던 변증법적 사유를 구성하는 '자기 자체내 반성으로서의 본질'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존재는 청소년이 활동함에 타자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 자기와의 관계를 통한 개념의 의미가 명료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노력의 함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의미와 존재론적 가치의 수준과 문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 1)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의미찾기는 가능한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질을 찾기 위함은 곧 가장 중요한 의미로서 추구하려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 목표로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단어적 의미로 재해석해 보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본질이라는 점은 청소년이 “활동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건강한 정신과 마음, 신체가 합일을 이루어 사회적 다양성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현재와 미래사회의 존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자기표현의 적극성, 긍정성 등을 얻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는 요소”를 말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하도록 청소년이 활동이라는 구조화된 서비스를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지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스스로 체험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본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이다.

즉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되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자가 추구하고 집중하는 것으로서 모든 청소년지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활동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형식으로 말하는 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조망하고 이들이 성인으로써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발현시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청소년활동의 의미이자 본질이 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에게 제공하려는 활동의 목적이 청소년의 발달과 지원에 대한 긍정성을 도모하지 않고 또 이러한 긍정적 지원의 가치에 비판적 도전을 하는 목적이라면 아마도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청소년중심 즉 성장이라는 가치지향성에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가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동의하면서도 무엇이, 어떠한 점을 가치있게 설명해 주는지의 형식과 규범적 관점에서는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명명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해 보았다.

사실 균형적 성장이라는 의미가 청소년이 자신의 특질과 본성적 의미를 잘 아울러 사회적 인재로 성장하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기르도록 함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재적 힘을 기르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통념에 의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개념을 만들 당시에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의 보편성이 학습, 지도, 가르침 등의 의미로서 동의가 가능했고 인성이라는 점을 함의하는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균형적 성장에는 가르침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자세와 특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지 그리고 자기표현에 대한 행동적 책무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가 포함되어지게 됨을 말한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찾는 것은 오히려 매우 쉬운 접근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지도자가 수행하는 행동적 지향점의 목적이 청소년지도자의 업무역량 증진이나 사업성취도 제고 및 성과를 통한 청소년지도자의 자기성장에 두고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지도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청소년에게 지원자로서의 역할이자 각종 코칭이나 멘토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부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속성으로서 청소년활동역시 분명한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다.

## 2)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관점에서 본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정의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설명해내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활동의 개념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서 얼마나 본질에 접근하게 하고 또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논의해 온 정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식과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 보인다.

-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구태익, 2000)
-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한승희, 1994)
-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김정명, 임상숙, 손미라, 윤혜영, 오순근, 1991)
-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전명기, 2006)
-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김진호, 2008)
-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비조직적활동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내외적 역량을 발현시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갖추는 것”(권일남 외, 2008).
-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자 함에 있으며 구체적인 역량군으로 자아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신체건강역량, 시민성역량 등을 증진하도록 하는 활동(권일남, 김태균, 2008).
-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인성적 측면이나 정서적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고, 이를 개인성장의 변화에 수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권일남, 오해섭, 이교봉, 2010)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그들의 인지·정의·행동 영역의 변화를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이미리 외, 2014)
- ‘청소년지도자나 성인의 조력이 있건 없건 간에,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 행하는 체험중심의 교육적 행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의 개념으로 대체시킬 수 있음(이광호, 2012, 전명기, 2010)
- 구미에서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이라는 이슈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도 청소년사업을 지니고 있음(박선영, 2013; 이민희, 2013; 민전순, 2013)

전반적으로 학술현장에서 바라보는 청소년활동의 이론적 정의가 아마도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등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학술적 논의과정에서 말하는 전반적 의미로서의 청소년활동은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즉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지도자중심이 아닌 청소년중심의 용어라는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의미로서의 해석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설명하는 의미마다 제각각이며 대상에 대한 분명한 형식과 구체성을 말해주는 데 대한 형태적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활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사업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내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개념설명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로서의 활동을 제시해 버리고 있는 오류로 보인다. 즉 사업이라는 개념속에는 활동을 제공하는 제공자입장의 서비스가 확보된 개념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특성을 시대적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이해하려는 본질적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어쨌든 청소년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찾고 그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활동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이행되며 적용되어지는지의 의미가 보다 명료화되어야 한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활동의 존재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자기관계의 부정성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를 헤겔, 듀이 등은 반성(Reflex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반성이라는 개념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성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회귀하려는 점을 찾아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반성은 부정의 자기관계를 바탕으로 자기동일성을 갖게 된다.

역설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을 전개하는 누군가 스스로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의미나 특성, 가치지향성 등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숙고하지 못한 점이 대부분이었다.

즉 말그대로 균형성장의 의미가 시대적으로 변화하거나 상황에 따른 대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도 보편적인 관념적 수준으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준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균형성장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었겠나 하는 데 심리적 동의를 하고서는

여기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더 컸다.

### 3)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방해하는 요소

청소년활동의 본질이 명료하다고 하거나 또 이를 위한 실행적 노력에 동의한다고 해도 본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청소년활동의 본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서 그 시도가 본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도달점행동은 매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의 청소년활동의 성과평가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① 양적 판단을 청소년활동의 본질로 오해하게 한 평가지표

물론 학문적 오류도 컸지만 더욱 더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내면화된 질의 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으로 표현된 성과를 지극히 당연하게 만들어 버린 현실적 한계이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성장이라는 본질에 두고 있으면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사고나 운신의 폭을 제한해 버렸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평가지표의 양적 의미일 것이다.

아마도 모든 청소년지도사를 획일적인 시각으로 몰아놓고 양을 정당화하며 이를 일정 기준의 적절성으로 판단하여 내외적 기준으로 명시하였던 가장 잘못된 결과의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순응성은 청소년활동의 청소년지향성을 확산하기 보다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미명하에 전문성을 포기하고 단순성으로 지각화시키는 한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견 초기에는 이러한 판단준거가 매우 의미있다고 자평하였으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sup>7)</sup>는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활동의 질적인 판단과 평가를 해야 할 효과성이나 청소년에게 균형성장으로서 영향을 준다는 가치지향성의 판단과 평가는 사라지고 오히려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청소년이 없는 활동, 청소년사업으로서의 평가와 같은 행위, 형식, 횡수, 예산 등 투입변수에만 골몰하게 만들어 버린 점이다.

아마도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체계에서 강조되

7)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어질 때 가치가 높은 화폐는 시장에서 없어지고 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됨을 말한다. 즉, 화폐로서의 가치는 똑같지만 재물로서의 가치가 다른 두 재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더 높은 재화(양화)를 저축하고 재물로서의 가치는 낮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즉 액면가는 같은 재화(악화)를 주로 사용하면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악화(화폐로의 가치)재물로의 가치)의 양이 늘어나고 양화(재물로의 가치)화폐로의 가치)는 점차 시중에서 그 모습을 감춘다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금괴 1kg과 바위 1kg으로 똑같이 물물교환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금괴를 주고 과자를 사겠는가 바위를 주고 과자를 사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보관하고 바위만 쓸 것이기에 시장거래는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질 것이고 금괴는 모습을 감출 것이다. 악화(바위)가 양화(금괴)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그레삼의 법칙. <https://namu.wiki>).

는 지표성 의미들은 주로 양적 지표와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연간청소년이용률, 수용정원대비 청소년이용률, 인증프로그램 개수, 연간프로그램 개수, 운영위원회 연간회의숫자, 청소년지도자 확보율, 직원의 보상규정갯수, 보험, 안전교육,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과의 MOU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결국 청소년지도자들의 경우 청소년과의 질적인 교제나 관계형성을 이루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만들기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아마도 평가지표의 단순성과 목표대비 산출성을 양적으로만 구축하는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입대비 산출이 본질적 요소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이를 본질과 얼마나 가깝게 수행되고 준행함으로써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 주고 청소년의 성장과 균형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할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활동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문성으로 확장시켜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sup>8)</sup>.

이러한 평가지표가 우리의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의 행동을 얼마나 크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결과 즉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질적인 노력이 유의미한지를 찾기 보다는 회의에 자료정리하기, 사진찍기, 표붙이기, 회계정리하기, 출석표만들기 등이 더 중요한 과업이며 이 역할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 하는 시간만들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현실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다.

## ② 청소년활동의 개념혼란과 본질의 한계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규정한 법률적 요소를 보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간에서 정의가 상호 동질성을 이루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상호 이질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 즉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의면에서도 오류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는 활동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재로서 수련, 문화, 교류활동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8) 사실 이러한 평가의 질적인 의미로 전환, 균형성장의 의미를 새로운 판단의 준거로 재확립하여 재단해야 한다는 것 역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활동을 양적인 평가를 하는 이면에는 청소년활동은 참여자의 능동성과 적극성, 주체성과 자발성, 참여적 행위를 포함하여 집단의 구조적 능력과 지원을 포괄한다는 사회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양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고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의 논리적 구조속에서는 보편적인 공정의 의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정은 상향으로서의 공정성이 아닌 내가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하향평준화를 공정으로 믿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마도 이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더 알 수 있다. 공정을 외치는 사람의 문제, BTS에 병역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합당한 답을 받지 못하니 성악가도 제외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마치 공정이라는 주장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는 공정이라는 의미로 포장되었을 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교류활동(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청소년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수련활동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되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하지만 교류나 문화활동은 청소년지도자가 없어도 되는 활동을 말하고 있는가에 의아함이 존재한다).

즉 법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활동이 행해야 할 본질적 의미에 대한 규정을 재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의 행위적 논의가 불비한 점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으로서의 요소가 균형성장의 의미에 함께 재구성되어야만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현장의 지도자가 느끼는 인식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할 청소년활동의 가치정립문제와 한계

청소년활동의 시대적 변화를 추종해야 할 이유를 보면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는 교육이 다양성과 효율성을 증시하는 개인의 역량의 신자유주의시대로 돌입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많은 평가방법과 형식의 유형을 보면 특정한 목적지향성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중심의 변화를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 또는 구조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한예로 대학의 커리큘럼 운영형식도 개별 대학이 어떠한 인재양성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역량지표가 제시되며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학과의 교과목, 교수목표, 강의기법, 중간 및 기말고사 등의 평가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별 교과목이 지향하는 바 또는 전체 교수가 수업을 추구하는 목표치가 대학이 제시하는 역량과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가에 따라 평가의 수치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역량이나 도달점 목표는 그 행위를 이루게 하는 방향타역할을 해 준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도 청소년의 어떠한 역량을 키울 것인가의 지침과 방향성을 알려 주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점을 찾아보기가 불가능하다. 많은 학자나 사람들은 청소년활동을 역량중심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의도한 바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 교육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초·중·고 교육 및 고등교육에서도 말하는 이러한 기준의 특성을 설명할 방법은 곤궁해 진다. 과거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자본에 두었고 자본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였기에 자본주의사회라는 말을 하였지만 지

9) 청소년활동 중 수련활동은 지도자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머지 교류나 문화활동 등은 지도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식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활동의 특성상 이러한 개념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용어이고 보면 청소년활동 중 수련, 문화, 교류 등의 활동정의를 구조적 정의의 모순이 있음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금 또는 앞으로는 지식사회로 명명할 정도로 지식의 독과점 또는 활용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은 증진되거나 침해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로는 청소년활동도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불안정성을 조절하고 조율하며 치료하고 개선해 나가는 맞춤형 선택적 의미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과도할 정도로 확장되어지고 있다. 게임요인, 경제적 요인, 가정적 요인, 개인 스스로의 요인, 친구 및 선후배요인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더 큰 부적응의 관계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거 대집단 형식의 활동이 추구하였던 보편적 활동도 필요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심리적 불안정성을 개선해내는 해결중심의 활동도 제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활동의 필요성, 접근성 등은 여전히 취약하다.

#### ④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특성화의 구심적 모호와 정책의 구체성 미비

청소년활동은 영역의 구분이 없는 확장적 특성이 장점이기도 하다. 최근 강조되는 청소년활동의 자율성, 주체성, 참여적 특성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 활동의 구성체로서 핵심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적용해 보기 어렵다.

청소년스스로 기획을 하고 자기주도적 행태를 위한 환경과 배경은 여전히 취약하다.

물론 여기에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과 주도적 능력 그리고 시간의 연속성 등은 여전히 청소년활동편이 아니다. 오랜 시간을 갖고 고민을 다하여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을 추진할 라치면 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주변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 관리자의 무관심, 조급증, 성과중심적 판단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도 기다림의 부재로 인한 실제 청소년중심의 활동을 추진함은 요원하다. 그래서 말로만 청소년중심이라는 상징적 표현에만 몰두하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여러 전문가의 기능과 달리 청소년활동에서의 전문적 기능은 수렴적 행위기 아닌 확산적 사고를 보장하는 행위여야 한다. 즉 활동은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기 보다는 일정한 형식을 토대로 하되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통섭하고 융합해내는 적극성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청소년활동의 형식성을 논하는 제도와 같은 점은 사실상 청소년활동의 의미나 본질을 저해하는 우려가 큰 부분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의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함의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청소년시설의 평가에서 중장기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평가를 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청소년활동에서 적용을 해 본다면 적어도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의 유형 또는 형태가 5년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인가의 정책적 추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청소년정책5개년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체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의 영역만을 특화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인재상을 고민하여 이를 추진하였을

때 5년 후의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람직한 국가청소년의 역량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능력이나 역량이 같지는 않을 진대 부족하거나 미흡한 지역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며 높일 것인지 등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적 방향이 없으면 나름의 노력으로 추진하는 활동의 지향점이 옳거나 성과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의미를 판단할 준거가 마땅치 않아서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형식논리에 매몰되기 쉽다.

#### ⑤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위한 반성적 의미정립으로서 요소가 부재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가치는 아마도 청소년성장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청소년활동에 한번 참여하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를 알리는 것은 바로 청소년지도자의 몫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은 이러한 기준점이나 성과의 동의를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양적인 성과라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기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록내용이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주로 프로그램 개발, 행정 및 회계관리 등의 논의는 다양하게 논의하였지만 그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형적 특성 이외의 내면적 성과를 표방하는 방법과 논의는 없었기에 이제서야 청소년들의 성장기록체계를 만드는데 상당한 불편과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

## 4.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청소년성장중심으로의 전환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제공하는 활동이 수요자인 청소년스스로에게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얻게 된다면 그 활동은 자연스럽게 성장이라는 가치를 얻게 된다.

아마도 오늘날 청소년활동이 과거에 비해 지체나 침체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초기 성장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활동과 특징이 여전하고 오히려 최근 확장되는 마을,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참여동기식 활동의 다양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강점은 여전히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수행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발전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질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년지도자 스스로도 청소년활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본질이해를 위한 몇가지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 1)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주체성 세우기



[그림2]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방향성 세우기

청소년활동은 그 자체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중심, 자율적 활동, 참여적 활동이라는 의미를 재설명하는 수식어는 따로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발적, 참여적, 체계적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다른 활동과의 비교우위적 관점을 제시해 보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일 수도 있고 지도자의 지시적 행위에 따른 수동적 참여일 수도 있다. 어느 하나라도 의미있고 어떤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수동적 행

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설명해내도록 하는가의 의미가 내재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성장이라는 의미의 본질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형식화해 보는 방법이 필요하다. 비록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추진하는 지도자나 청소년 모두가 함의를 이끌어 가는 암묵적 동의의 틀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활동을 참여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논리적 틀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2) 청소년주도성, 주체성이라는 상징성 의미만의 강조에서 벗어나기

주도성, 주체성의 의미전달은 언어적으로는 쉽지만 행위적으로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백지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창의적 활동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로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적인 참여, 주체성에 그치지 말고 주체적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과 맥락의 설명이 필요하다.

듀이는 학습에서 참여를 통한 경험이 주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중시하였는 바 청소년지도자 역시 청소년활동의 성과는 경험이라는 틀속에서 자신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기회를 얻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본질을 찾지 못하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동의하고 지원을 얻기 어렵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의 경우 분명한 성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나의 재능을 통해서 타인에게 직접적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동의를 얻기 쉽다. 즉 1차적 사업성이나 서비스의 효과가 타인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은 모든 사람의 함의를 얻기 쉽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의 1차적 목표는 나의 재능과 역량의 발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활동에 참여함은 곧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짐을 의미하기에 비용이 과다한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성과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표출하고 그러한 성과가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적절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적 요소에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얻고자 했는지를 다음의 형식에 따라 발견해 보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활동참여 청소년의 행동기록요소

### 3) 청소년중심의 성과물 만들기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변화나 본질은 바로 양적 성과중심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몇번 참여한 성과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청소년활동의 본질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을 찾는 시도는 청소년의 행동변화를 기록하는 시스템의 발굴과 유지이다.

최근 서울시의 희망청소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성장기록부의 틀은 이러한 본질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왜냐면 아직 이러한 시도나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과 우리 모두 성장이라는 균질한 가치를 얻어본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만난 청소년이 성장의 틀속에서 변화되고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나누는 틀이 존재하는 것은 청소년과 함께 하여 말 그대로 균형성장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재생산하여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4) 성과와 변화중심의 평가지표 구성하기

공적 자산의 투입과 이를 판단하는 것은 예로부터 항상 커다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평가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가 청소년과 함께 기관이나 청소년지도자 모두에게 발전지향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성장을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명료화된 증거이다.

그렇다고 양적 지표는 잘못되었고 질적 지표만 필요하다는 점이 아니다. 양적 지표가 필요한 부분 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를 개량화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질을 개량화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몇만, 몇십만 등의 청소년 수가 참여한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과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논의된 회의 내용이 무엇이며, 누구를 초청하고, 그 과정에서의 실패나 성공 등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무대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의 의지, 참여노력, 표현하려는 준비 등을 통한 자기성장의 과정이 더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증거가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 5) 청소년활동의 증장기 및 연간계획수립방향성 제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의 핵심영역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중요한 발전의 배경이 된다. 만약 오늘날 세계를 뒤 흔드는 한류의 차원인 청소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더걸스, 소녀시대로부터 BTS 등의 엄청난 국위선양의 인재들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

시간이 가면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저마다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뽐내고 몸으로 표현하며 재능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터인지 대학에서도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던 형식의 축제는 사라지고 함께 참여하며 재능을 발표하는 형식이 더 사랑받고 있음을 본다.

문광부에서는 문화컨텐츠를 자랑스럽게 발표하지만 여가부는 청소년이 활동을 통한 성과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동아리, 청소년시설의 동아리 및 각종 댄스활동, 문화 교류활동 등은 청소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만약 여전히 숨쉴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업만을 일삼고 있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회분위기라면 청소년들의 삶은 매우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소년시설의 활동분야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증장기 청소년활동정책은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청소년활동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탐구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향후 5년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대책을 찾고 고민하며 오늘도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방향성, 기관연계성, 협업성 등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한다.

## 5. 마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본질에 대한 작은 고민을 해 보았다. 지금의 청소년활동이 캐즘(chasm)현상<sup>10)</sup>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아마도 절박한 과제라 여겨진다. 캐즘적 현상에 빠진 청소년정책은 자체적 선명성을 부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타 영역의 정책대상 확장으로 인한 보편성과 상징성의 취약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활동이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은 분명하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부분에서의 성과일 뿐 전문적 영역에서는 항상 무엇이 큰 변화이며 지속되어야 할 이 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본질찾기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주제이자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전만해도 청소년활동의 성과나 의미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선언적 의미만으로도 수용되고 받아들인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대상이나 분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분명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효과라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본질이라는 점과 함께 연관시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였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는 보다 분명한 그 무엇인가를 재 확인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노력을 객관화한다면 청소년활동은 학문적으로나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청소년지도자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구태익(2000). 한국 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 수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일남, 김태균(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영역구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3. 67-89.
- 권혁성(2010).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연구에 나타난 본질. 西洋古典學研究, Vol.41
- 김정명, 임상숙, 손미라, 윤혜영, 오순근(1991).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진호(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0) 캐즘은 처음에는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https://100.daum.net/encyclopedia>).

5(4), 1-25.

김진호, 권일남, 이광호, 최창욱(2009). 청소년활동론. 서울: KNOU Press.

민전순(2013).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31-6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선영(2013).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1-2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찬수(2010). 본질적 속성과 본질 : 플라팅가 본질주의 비판과 형이상학적 필연성. 철학적 분석, Vol. 22.

박철웅(2010).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방향.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및 영역 재설정 (워크숍자료집), 4-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광호(2012). 새로운 청소년육성제도 및 정책론. 서울: 창지사.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이민희(2013).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희진, 송병국, 안지선(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장지훈(2002). '존재'와 '본질'의 관점에서 본 탈 모더니즘의 건축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명기(2010). 청소년활동 개념의 재구조화. 청소년활동 재개념화 및 영역 재설정 (워크숍자료집), 29-3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종화(2019). 헤겔의 근거논리학에서 형식과 본질의 관계. 철학사상, Vol.71.

최창욱, 문호영, 이효인(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학개론. 서울:교육과학사.

<https://100.daum.net/encyclopedia>

I.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염진수 ((사)더 나은 세상 이사장)

II.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고승은 (서울 영신초등학교 교장)

III.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염진수 (사단법인 더나은세상 이사장)

## 목 차

- I.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
  - 1. 청소년지도란
  - 2. 청소년활동이란
- II. 비형식교육
  - 1. 비형식교육의 구분과 개념
  - 2. 비형식교육의 원리
  - 3. 경험학습이론과 반성적 사고과정
- III. 비형식교육 관점에서 한국의 청소년활동 실무 제언

## I.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

우리는 평소에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도 이 용어의 개념을 혼돈하여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따라서 비형식교육으로서의 청소년활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관점을 가져야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이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 1. 청소년지도란

####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3조)에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관련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육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청소년지도란 ①

그렇다면 청소년육성이란 무엇인가. 청소년기본법(3조)은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규범적 정의로서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그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본성 실현 및 잠재력 개발을 조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철, 2008).

### 청소년의 발달 과제

청소년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정서적 변화라고 정의할 때, 청소년 발달의 개념은 성장, 성숙, 학습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진호 외, 2008 재인용; 권일남 외, 2010).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게 급격한 발달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발달의 과정을 무난하게 거쳐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해 건강한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지도란 ②

청소년지도에 대한 정의는 국어대사전에도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만 지도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이고 청소년기의 최대의 당면 과제가 ‘잘 발달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이 잘 발달하도록 가르치고 이끌기**’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지도는 청소년이 생물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사회정서적으로 잘 성숙하고, 인지적으로 잘 학습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청소년활동이란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제3조)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①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②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③청소년을 보호하기. 그리고 여기에 ④청소년을 상담하기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청소년을 돌보기), 청소년보호(청소년을 보호하기), 청소년상담(청소년을 상담하기)와 달리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을 OO하기' 또는 '청소년이 OO하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활동'이라는 용어는 대상자인 청소년이 주체인 용어이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복지, 보호, 상담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도 다른 청소년 분야인 보호, 복지 그리고 상담 분야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찾는다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개선하는 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소년의 발달과 경험의 관계

청소년의 발달에서 성장, 성숙의 개념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경험이다.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심리적·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바로 경험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성숙은 경험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발달에서의 학습은 외부와의 경험이나 훈련의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를 의미한다(이현림·김영숙, 2006 재인용; 권일남 외, 2010).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경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줄 것인가는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 교육으로서의 청소년활동

어원적으로 청소년과 활동이 복합하여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 청소년활동은 발달시기의 청소년에게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는 기능을 활동이 수행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성장의 조건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활동, 청소년에 의한 활

동,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은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학습과 교육 그리고 훈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Bradbery, 2007 재인용; 권일남 외, 2010). 나아가 청소년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요소를 다루는 청소년학은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철, 2008).

### 수련활동만이 아니라 교류활동, 문화활동도 교육적 청소년활동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다. 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에서 수련활동과 교류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유독 수련활동만을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단순한 신체적 발달이나 기능향상 또는 취미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체험하며 시민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스포츠활동도 매우 구체적인 교육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봉사활동도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해외봉사활동도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청소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련활동만이 아니라 교류활동과 문화활동은 물론 그 외의 모든 의도적으로 조직된 청소년활동을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떻게 교육적 목적을 성취할 것이냐는 각 활동분야의 프로그램별로 논의되어질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험학습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권일남 등(2016)은 청소년활동은 그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의해 구

조화되고 계획된 활동이며, 청소년활동의 4가지 구성요소로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 활동터전을 제시했다.

## II. 비형식교육

### 1. 비형식교육의 구분과 개념

UNESCO는 Edgar Faure Report(1972)를 통해 평생학습을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그리고 무형식교육(Informal learning)의 유형으로의 구분을 제시하며, 비형식교육을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교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UNESCO(2012)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를 통해 교육을 크게 세 가지 즉,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그리고 무형식학습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무형식학습을 교육에의 참여는 통계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형식학습은 형식이 없으며 우연적이거나 무작위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되고 조직된 교육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ISCED 2011에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은 통계목적에 위해서만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비형식교육의 분류는 형식교육과 비교하여 교육내용의 동등한 요건과 교육으로 나타나는 자격기준만을 사용하고 있다.

ISCED 2011의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형식교육:** 공기관이나 인증받은 민간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의도적이고 계획된 교육

**비형식교육:** 형식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제공자에 의해 관리되고 의도적이고 계획된 교육. 개인의 평생학습의 과정 안에서 형식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며 대안적이거나 보충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정의적 특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비형식교육은 교육당국에 의해 형식교육의 형식적 질적체계와 같은 수준의 형식적이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참여를 통해 형식적이고 인정받는 자격을 획득하게 한다.

보통 단기과정이거나 저장도이며, 워크샵이나 세미나의 형태로 제공된다. 국가에 따라서 성인이나 청소년의 문해와 학교밖청소년 교육, 생애기술, 업무기술 그리고 사회적이거나 문화적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 어떤 경우에는 형식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대안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기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의 학습활동도 포함하기에 반드시 직업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유럽연합(2001)도 유럽청소년백서에서 UNESCO와 유사한 개념으로 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형식학습:** 전형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기관에 의해 제공되며 증명서를 제공받으며, 학습목표, 학습시간, 학습지원의 차원에서 구조적이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의도적인 교육이다.

**비형식학습:** 교육이나 훈련 기관에 의해 제공되지 않으며 전형적으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형식교육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이며 의도적인 교육이다.

**무형식학습:** 교육이나 훈련 기관에 의해 제공되지 않으며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구조적이지도 않다. 일이나 가족 또는 여가와 관련된 매일 활동의 결과이며 비의도적 학습이다.

형식적, 비형식 학습영역의 연결은 개인개발의 개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비형식교육은 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성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청소년 간의 교류와 실험적 형태들을 증진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봉사활동은 유럽 차원에서 교육적 경험으로서 그리고 비형식학습의 기회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ouncil of Europe(1999)는 형식교육 체계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비형식교육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Council of Europe(2000)은 비형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으로 강조하고 공동체와 청소년NGO들에 의해 비형식교육의 핵심역할이 수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의서(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비형식교육은 “평생학습의 개념의 한 부분이며 청소년과 성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 역량 그리고 세계관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유럽연합과 달리 유럽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다루며 비형식교육을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보는 경향이 있는 Council of Europe는 교육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형식교육:** 구조화된 교육체계로서 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원되며 나이에 따라 승급하며 초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운영된다.

**비형식교육:** 형식교육 체계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활동

청소년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 교육으로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형식교육 밖에서 제공되는 보완적 교육 커리큘럼으로, 참여는 자발적이며 훈련된 리더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Council of Europe, 1999)

**무형식교육:** 일상생활 속의 학습이며 매일의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 친구, 동료그룹, 미디어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의 다른 영향들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비형식교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형식교육은

- 1) 구조적으로(Structured) 계획된(Planned) 교육목적의(Educational objectives) 프로그램이다.
- 2) 전형적인 교육 제공자인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한다.
- 3) 지식교육 중심의 형식교육의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관계이며,
- 4) 지식보다는 스킬, 역량, 세계관 등의 교육을 주로 다룬다.
- 5) 교육의 성과보다는 과정중심의 운영을 하며,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유사성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교육과 마찬가지로 비형식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교육당국이나 교육 제공자에 의해 제도화 또는 체계화되고, 의도적이고 계획된 체계적인 교육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비형식교육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비형식교육에 대한 합의되거나 명료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비형식교육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암묵지적이고 맥락적인 태생에서 기인하기 때문(Chisholm, 2001)일 수도 있고 또한 비형식교육의 성과를 사정(assessment)하고 평가(evaluation)하기가 쉽지 않아 구조적 교육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일무이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비형식교육을 얘기하는 모든 이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비형식교육이 아니라 비형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관점이므로 2)형식교육 안에서도 비형식교육의 방법을 도입하는 요즘의 추세에 맞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비형식교육에 대한 관점을 거두고 학교교육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비형식학습’이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비형식교육의 원리

###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 교육

비형식교육은 대상 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사회 이후의 전통적인 학교교육 즉 형식교육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비형식교육은 학습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학습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를 넘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잘 배울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한 교육의 관점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대상자인 학습자 중심(learner-oriented)으로 보는지 또는 학교, 교육당국, 교사 등의 제공자 즉, 교수자 중심(teacher-oriented)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나 활동이 발현되기 어려우며 최상의 학습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형식교육 위주의 학교교육과 달리 비형식교육인 청소년활동은 더욱 더 철저히 학습자 즉,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목적인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Bloom과 Dreikurs가 강조하는 학습자중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교류를 교수학습의 필수요소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의도적으로 조직된 목적지향적 교육**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교육적 목적을 바탕으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획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기에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계획한 바대로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한 내재적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비형식교육 안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으로 조직화된 활동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청소년활동을 교육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청소년활동은 무형식학습 활동에 속하기도 한다. 시대가 변화하며 청소년들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비조직적이고 비의도적인 활동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청소년활동이라고 일반화하여 규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한 교육목적 없이 그리고 지도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형식학습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

### **생활기술과 연관된 전인적인 교육**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 학교, 사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생활기술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태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뿐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권일남 외, 2010). 100여년 전 근대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근대학교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ICT사회에서는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대두될지, 그에 따라 어떤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상황이나 업무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 교육이다. 교육부(2015)는 2015 개정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이 실제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했다. 더불어 6가지 핵심역량으로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다.

Pellegrino, W. J. & Hilton, M. L. et al.(2012)은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인지역량 : 인지과정과 전략, 지식, 창의성, ②내적역량 : 지적개방성, 직업윤리, 성실성, 긍정적 핵심 자기평가, ③대인역량 : 팀워크, 협업, 리더십. 이 21세기 핵심역량은 인지역량, 내적역량 그리고 대인역량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필수적인 생활기술일 뿐만 아니라, Bloom(1956)이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의 세 가지 영역 즉, 인지영역, 정서영역 그리고 심동영역에 추가적으로 내적영역을 포함하여 발전시켰다.

청소년지도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인성이란 인지적·정의적·신체기능적 특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의미한다. 인지적·정의적·기능적 교육을 개별적으로 모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교육과 동시에 정의적·기능적 교육을, 그리고 정의적 교육과 함께 인지와 기능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경험 속에서 이들 각 영역이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한상철, 2008).

생활기술과 연관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활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교과목이나 특정 테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생활기술을 활용하여 참여하여 학습하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 교육 성과가 아닌 과정 중심

교육활동의 성과지향과 측정기반의 교육을 하는 형식교육과 달리 비형식교육은 과정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절차와 성과 중심의 형식화된 교육은 역설적으로 창의적, 열린결말의, 경험적, 그리고 참여적인 비형식학습의 질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Chisholm, 2001). 형식교육이 미리 설정된 계획과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의해 전개되는 교육인데 반해서 비형식교육은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는 교육과정이다. 결과나 생산중심의 교육이 아닌 과정중심의 비형식교육 과정은 Dewey를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교육이론과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참여자인 청소년에게 의도적이고 과제지향적인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가치를 연마하도록 하고 자신의 잠재적 가치와 역량을 외부로 발현시켜주는 교육적 발상의 집합이다(권일남 외, 2010). 청소년지도 프로그램은 지도의 결과(products)보다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상철, 2008).

### **그룹활동을 활동을 통한 집합적 학습**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역량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며 상황을 결정짓는 기능을 한다. 특히 대인역량은 타인과의 정서적인 문제 상황이나 인지적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물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관계 상황에 이르기 모두 아우르게 되며 그 성과에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팀워크, 협업, 리더십 등의 대인역량은 인지적 학습을 통해 완성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그룹활동 또는 공동체활동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적 습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룹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문제해결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그룹활동이 문제해결에 항상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룹활동의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인역량을 강화시키며 자기평가와 지적개방성 등의 내적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룹활동을 통해 집단지성을 이용하게 되므로 지식을 넓히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인지역량까지도 강화시키는 통합적 효과를 가져온다.

### **자발적**

학습자는 자신이 지식과 능력이 매우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습경험이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대사장가자 학습경험을 가질 때 비로소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권일남 외, 2003). 이렇듯 청소년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이므로 그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권일남 외, 2010). 학교나 가정 또는 사회기관 등에 의해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육 및 행사활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청소년지도라고 보기 어렵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진정한 청소년지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한상철, 2008).

## 민주적

Dreikurs는 학생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기술을 제시하면서 특히 민주적 방식의 생활지도를 강조하였는데,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 교육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reikurs, Grunwald, Pepper(1971)가 제시한 학급내 집단토의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보면, 자기훈육, 책임 분담, 협동, 사회적 평등, 상호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적인 교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본받은 그들의 교사에 의해 존중받으며 인정받는 아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급에 소속감을 갖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통의 목적을 위해 통합되게 된다(김희경, 2002).

## 참여적

형식교육이 고정되고 의도된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미리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인데 비해서 비형식교육은 생활 속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스러운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맥락적 학습의 과정이다. 구성주의 교육이론가들에 의하면 학습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 의해 구성되며, 지식은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윤진, 2011). 즉 지식이란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고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Duffy, T.M. & Cunningham, D.J., 1996).

## 학습자의 경험 기반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체험과 결부된 교육, 살아 있는 체험학습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체험학습이란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특정한 학습유형을 포함하여 학습이 본질적으로 체험을 수반해야 함을 말하다(권일남 외; 2010). 청소년활동은 참가하는 청소년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와 관찰을 통해 사고하며 그 안에서 배움거리를 찾아내게 된다.

청소년지도는 학교라는 형식적 교육시설에서 교과를 매개로 실시되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시설 및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개로 체험과 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과 학교 내 교육을 통합한 것이다(한상철,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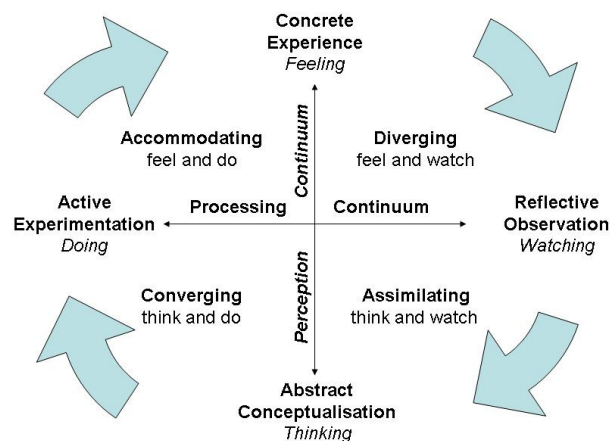
비형식교육은 학습자가 직접 학습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목적하는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의 직접 경험은 비형식교육에서 필수적이지만, 경험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효과를 거두게 되는 경험학습의 이론적 순환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학습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

이에 비형식교육의 핵심기반인 경험학습이론을 살펴보고 경험학습의 핵심과정인 반성적사고의 중요성과 그 실행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경험학습이론과 반성적 사고과정

#### 경험학습이론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Kolb(1984)는 경험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서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경험학습이론을 4단계의 순환학습으로 제시하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림 1) Kolb의 경험학습이론 모형

자료: Kolb, D. A.(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첫 번째 단계인 구체적 경험(feeling)은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반성적 고찰(watching)은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반추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인 추상적 개념화(thinking)는 학습자가 성찰적 관찰을 통해 정리된 모형이나 배운 것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적극적 실험(doing)은 학습자가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서 정리된 어떤 모형이나 이론을 어떻게 테스트해볼지 계획을 시도하거나 다음 경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Kolb의 경험학습이론의 아래의 4단계가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경험

#### 반성적 고찰(Reflective Observation)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학습자가 반성적 고찰을 통해 정리된 모형이나 배운 것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학습자가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서 정리된 어떤 모형이나 이론을 어떻게 테스트 해볼지 계획을 시도하거나 다음 경험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반성적 사고과정 Reflective Thinking Process**

경험학습에서 경험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성적 사고(또는 성찰, reflection)의 과정이 필요하다. 듀이는 행위에 의해 생긴 변화가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에 반영될 때 비로소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았다(Dewey, 1938; 오윤선 외, 2018 재인용).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얻은 경험으로부터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와 개념을 파악하며 적용해 나가는 학습의 장이다(권일남 외, 2016).

경험이라는 행위의 과정을 거치며 갖게 된 인지적 지식이나 정서적 변화를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그 결과를 참가자 스스로 내면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기 고유의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육목적의 청소년활동의 이론적인 토대인 경험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관점의 마무리 단계인 반성적 사고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성적 사고과정이야말로 기존의 지식교육 중심의 전통적인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형식교육의 교육적 관점과 가장 차별화되는 교육방식이기 때문이다.

**III. 비형식교육 관점에서 한국의 청소년활동 실무 제언**

**경험학습이론의 실무에 적용**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의 하나인 청소년활동론을 수강해야 하며, 이 과목에서 청소년활동의 핵심적, 이론적 토대 중의 하나인 경험학습이론을 배운다. 하지만 청소년활동 실무에서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조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소년 관련학문 전공자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비전공자들은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으로서 경험학습이론을 배운다. 하지만 실무와 정량적 성과에 집중하다보면 실제로 경험학습이론을 제대로 실제에서 훈련하거나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에서 활용하지 않는 지식이나 기술은 쓸모가 없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퍼실리테이터, 트레이너, 모더레이터 또는 코치로서 경

험학습이론의 전 과정을 실제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으로 배양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량은 지속적인 경험과 평가를 통해서만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

=> 청소년지도자들이 경험학습이론을 학습하고 훈련하자

### **반성적 사고과정을 필수적으로 실행**

경험학습이론의 핵심은 반성적사고의 과정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의 경험이 학습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반성적 사고 과정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세션의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반성적 사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참가자들의 자발적 발언 참여를 유도하며 진행한다. 절대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대로 발언하게 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가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야 비형식교육으로서 그리고 경험학습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 각 세션 시간의 1/5을 배정하여 반성적 사고 단계를 진행하자

### **참가자 중심의 평등한 접근**

비형식교육과 경험학습 프로그램인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들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학습의 주체로서 참가할 때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의 경험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다(Dewey, 1983). 지도자의 위계와 권위가 배제되어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할 때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지도자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동등한 학습자로서의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성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긍정적인 응대의 첫걸음이다.

=> 참가자들과 토의나 반성적 사고과정을 진행 시 원으로 모여 진행하자

### **반성적 사고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반성적 사고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은 리더나 선생님같은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닌 회의 진행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청취자의 역할(Active listener)을 해야 한다. 모두 알고 있다거나 모든 의견이나 감회에 대하여 훈계나 훈시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입을 닫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행자의 역할을 해보게 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또 다른 학습의 경험으로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상황은 능숙한 지도자가 원활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고 열린결말(Open ending)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Continuous learning)에 대한 동기부여를 본인과 참가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 액티브 리스너로서 진행하고 열린 결말과 동기부여로 마무리 하자**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
- 권일남 외(2003). 청소년수련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2010). 청소년활동론. 공동체.
- 권일남, 오해섭, 이교봉(2016). 청소년활동론. 공동체.
- 김희경(2002).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이해와 생활지도 방안: Rudolf Dreikurs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윤선, 황인숙(2018). 청소년지도방법론. 양서원.
- 최윤진(2011). 청소년 시민참여와 비형식교육. 시민청소년학연구, 2(1), 31-59.
- 한상철(2008).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 Bloom, B. S. (Ed.). Engelhart, M.D., Furst, E.J., Hill, W.H., Krathwohl, D.R.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Handbook I: The Cogni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 Inc.
- Chisholm, Lynne(2001). Report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Directorate Symposium on Non-Formal Education, Strasbourg (EYC), 13-15 October 2000. Strasbourg.
- Council of Europe(1999).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port on Non-Formal Education Doc. 8595, 15.12.1999. Strasbourg.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
- Council of Europe(2000). Recommendation 1437(2000)1, adopted 24 January 2000. Strasbourg.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 Council of Europe(2001). Report of Symposium on Non-Formal Education, Strasbourg (EYC), 13-15 October 2000. Strasbourg.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 Council of Europe(2003). Study on the links betwee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Strasbourg.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 Delors et al.(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Delors Report). Paris: UNESCO.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Dreikurs, R., Grunwald, B.B., Pepper, F.C. (1971). Maintaining sanit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rper & Row.



- EU(2001).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aure et al.(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the Faure Report). Paris: UNESCO.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Pellegrino, W. J. & Hilton, M. L. et al.(2012). Education for Life and Work: Developing Transferable Knowledge and Skill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UNESCO(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Montreal, Quebec: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고 승 은 (서울영신초등학교 교장)

## 목 차

- Ⅰ. 학교현장의 청소년단체 활동의 현황
- Ⅱ.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
- Ⅲ. 청소년단체 활동의 발전방안

## Ⅰ. 학교현장의 청소년단체 활동의 현황

### 1. 목적

청소년단체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및 청소년단체의 이념구현을 위한 단체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력에 기초한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협동 봉사하는 정신과 생활 기능 체득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자율과 책임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법적근거

#### 가.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5208호, 시행 2018.6.13.]

#####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

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453호, 시행 2018.9.14.]**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인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육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예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청소년단체 조직

#### 가. 기본방향

-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 대(단)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되, 학생의 개인적 희망(학부모 등의 필요)에 따라 가입한 학생으로 조직하며, 단체 간 경쟁적 인원 확보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교는 청소년단체활동 학생의 청소년단체활동지도 상황을 누가 기록하여 관리 한다.
- 3) 연간 활동계획은 청소년단체의 특성(청소년단체의 설립목적과 정신에 부합)과 학교, 연맹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교원이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운영한다.
- 4) 청소년단체활동비는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징수 및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 5) 청소년단체활동비 징수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청소년단체 학부모에게 알리고, 행정실에서 징수 및 회계 처리한다.
- 6)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학생을 모집한 후, 등록요건[등록서류(가입신청서, 등록원서 등), 가입비(입단비), 보험료 등]을 갖추어 각 청소년단체(연맹)와 협의하여 절차를 거쳐 당해 학

년도 최초 행사 전까지 반드시 등록(보험 가입 포함)하도록 한다.

7) 연맹주관 행사 참여를 권장하며, 연맹(본부) 및 지구연합회(지역협의회)에서 주관 하는 행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연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행사일 것
- 나) 참가비 송금 등 계좌는 연맹(본부)명의 계좌일 것
- 다) 가정통신문은 연맹(본부)장과 학교장 공동명으로 발행

## 나. 청소년단체 조직

### 1) 지도자 조직

가) 지도교원 : 단위학교 청소년단체를 지도하는 교원으로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한 청소년단체활동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자율동아리 중심의 운영을 권장

나) 협조지도자 : 단위학교는 교직원이나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협조 지도자를 임명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협조지 도자에게도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2) 대(단)원의 조직

가) 학생, 학부모, 지도교원, 학교·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나) 대(단)원 모집은 가정통신문, 안내장, 홍보용 유인물 등을 발송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 단체의 학생조직은 각 청소년단체의 구성 특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라) 대(단)원 구성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다. 연간 활동계획 수립

1)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의 협의를 통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2) 연간 활동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단위학교 교육과정, 연간행사 일정, 각 청소년 단체(연맹, 지구, 중앙)의 행사 및 연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지도교원은 단체 소속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한다.

4) 연간활동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 연간활동계획은 학기 초 일괄심의를 가능하며, 연간 계획에 없는 활동[방학 중 행사, 보(조)장 훈련 등]은 행사 전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 청소년단체 등록

- 1) 단체조직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필수적으로 각 청소년단체(연맹)에 등록 하되, 당해 학년도 최초 행사 전까지 반드시 등록(보험 가입 포함)해야 한다.
- 2) 단위학교의 지도교원(교직원 협조지도자 포함)과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등록요건 [등록서류(가입신청서, 등록원서 등), 가입비(입단비, 보험료 등)]을 갖추어 해당 청소년단체(연맹)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는다. 3)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해당 청소년단체에 등록을 완료한 후, 당해 학년도 교육청 요구 시에 등록 현황을 제출한다.

#### 4. 청소년단체 운영

##### 가. 청소년단체 운영

- 1) 청소년단체의 특성에 맞는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2)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의 연수(30시간 이상)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3) 대(단)원은 단복 및 장비 등을 물려받아 활동하는 등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입단 시 기본이 되는 단복 이외의 필수품이 아닌 장비의 구입은 지양한다.
- 4) 청소년단체연맹(지사·지구·중앙) 행사 참가 여부는 학교장이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연맹(본부) 및 지구연합회(지역협의 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연맹(지사·지구·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행사일 것
  - 나) 참가비 송금 등 계좌는 연맹(지사·지구·중앙·본부)명의 계좌에 한함
  - 다) 가정통신문은 연맹(본부)장과 학교장 공동명의로 발송
- 5) 청소년단체 모든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위험한 활동은 대비책을 마련 후 실행한다.

##### 나. 대(단)원 교육 및 훈련

- 1) 기본 계획
  - 가) 대상 및 인원 : 각 단체의 조직 계획 및 학교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 나) 시기 : 연간 활동계획에 의거 적절한 시기 선정한다.
  - 다) 장소 : 영역과 활동내용, 학년에 따라 교내·외 등 적정 장소 확보
  - 라) 소요시간 : 기본 활동은 1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및 교육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집중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시간은 학교급별(초·중·고) 단 위 수업시간을 1 시간으로 인정(그 외 지도 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인정)

마) 준비물 : 영역별 활동에 따른 개인 및 대(단) 준비물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

## 2) 교육(훈련) 사전 점검

가) 영역별·활동별, 사전 준비물, 장소, 지도내용, 지도교원 배정 등을 점검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고, 대(단)원들의 건강 상태 확인한다.

## 5. 청소년단체 주요활동 내용

### 가. 서울시교육청 인정 청소년단체 : 총 15개 단체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서울본부,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세계화교육문화재단 GENY단,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청소년봉사단연맹, 한국119소년단연맹,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서울특별시4-H본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나. 주요 활동 내용(청소년연맹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의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단원들은 다음과 같이 단원 8대 주요활동을 통해 자발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 1) 자기계발 활동



내일의 주인공으로서 바람직한 품성을 기르고 미래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고고씽 경제학교', '창의력 향상을 위한 미술체험활동', '청소년진로작업캠프',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소금밭 체험', '안전 체험활동(위기탈출119)' 등이 있다.



## 2) 전통문화 활동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문화의 바탕 위에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새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전통문화학교, 온고지신 선비체험, 전통음식 및 전통문화체험, 대가야 문화탐방, 민속놀이 등이 있다.

## 3) 문화감성 활동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감각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으며 투철한 역사 의식과 민족적 긍지를 가진 문화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으로 농촌체험활동, 대구도심골목길 유적지투어, 영호남 우정교류 등이 있다.

## 4) 모험개척 활동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성취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행하는 극기, 인내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강인하게 단련하며 진취적이고 개척자적인 기상을 진작하는 활동으로 야외수련 안전학교, 코야스쿨핑, 아람단 하계연합수련대회 등이 있다.

## 5) 과학정보 활동



21세기 주역으로서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 코야챌린지-창공청해(蒼空靑海), 세계 속 과학기술의 중심 KAIST를 찾아서, 청소년 CYBER축제, 온라인 게임대회 등이 있다.

### 6) 사회봉사 활동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며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어린이날 미아보호 명찰 달아주기 캠페인, 태극기 달기 캠페인, 비문되쓰기봉사활동, 통학로 교통정리, 환경보호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이 있다.

### 7) 나라사랑 활동



현장체험으로 분단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애국정신과 호국의지를 키우며 규칙적인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역사와 전통을 찾아서 테마역사기행, 의병학교 명예입교, 문화재 지킴이활동, 통일기원나라사랑대행진 등이 있다.

### 8) 국제교류 활동



해외연수와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해 세계인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화시대에 진취적으로 적응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으로 해외숙 우리의 얼을 찾아서, 국제청소년야영대회, 국제친선 문화교류활동, 해외연수, 외국청소년시설 견학 등이 있다.

## 다. 청소년단체 운영현황(청소년연맹을 중심으로)

### 1) 2019년 남서울연맹 가맹교 현황(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계
74	31	23	128

2) 2019년 남서울연맹 단위 및 지도자 현황

○ 2019년 신입단원 현황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계
1,074	454	138	1,666

○ 2019년도 전임지도자 등록현황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계
233	38	15	286

3) 전년대비 단원감소 현황

구분	신규			기존		
	2018년	2019년	증감	2018년	2019년	증감
아람단	2,050	1,074	-976	2,633	2,130	-503
누리단	480	454	-26	274	240	-34
한별단	421	138	-283	282	90	-192
계	2,951	1,666	-1,285	3,189	2,460	- 729

○ 아람단 74개교(2019년 등록기준) 중 27개교가 신입단원 모집하지 않음

○ 2018년 대비 13개교가 아람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

II.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

1. 청소년단체 활동은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며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워너 교수는 카우아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쳐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인간관계이다. 어려운 환

경 속에서도 곳곳이 제대로 성장해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친구든 가족이든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적어도 한사람은 있었다는 것이다. 40년에 걸친 카우아이 섬 연구는 한마디로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린시절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되고 이 능력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긍정성의 강화이다. 긍정성을 강화하면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긍정성을 습관화하면 누구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긍정성을 습관화한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나간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어린시절 친구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 활동 속에서 습득되고 또 강화된다. 초등학교 시기에 **또래집단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 어린이들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2.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는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놀이’이며 청소년단체 활동은 ‘놀이교육의 장’이다.

‘호모 루덴스’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모든 문화현상의 기원은 놀이에 있고 놀이를 통해 문화가 생겨나고 발달했다는 이론으로 ‘놀이는 비단 문화의 문제가 아닌 어린이들의 성장과정과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놀이 연구의 선구자 스튜어트 브라운은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성장과정과 생활환경에서 놀이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놀지 않고 나홀로 지내는 경우, 놀이가 부족하여 점차 심리적인 억압이 발생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결국 충동적인 범죄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프랭크 윌슨은 ‘The Hand’라는 책에서 나사, 보잉 등의 회사에서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할 때 일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차를 고쳐보지 않았거나, 어린시절 손으로 놀아본 경험이 없다면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가 어린시절 즐겨했던 소꿉놀이, 구슬치기, 비석치기 등 이런 사회적 놀이는 우리의 삶에 생존, 인간관계 등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은 놀면서 자라게 프로그램 되어있는데 놀지 못한 아이들은 우울증에 쉽게 걸리고, 또한 부적응 학생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결과 처럼 현

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놀이부재로 인한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다음의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노는 시간보다 사교육에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교육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증인데, 이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은 2만550명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38%가 학원이 밀집한 5개 구(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스트레스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직장 부적응, 낮은 자존감,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과를 찾은 30대 김모씨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A씨는 "김씨는 과거 축적된 사교육 스트레스가 뒤늦게 '핑'하고 터진 것"이라며 "남들과 비교당하며 유년을 보낸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성인이 돼서도 부모와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후 학교 급별 학교폭력은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6). 하지만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 오던 학교 급별 학교폭력은, 지난 해 들어 초등학교에서만 상승세로 전환',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초등학교(2.1)의 학교폭력은 중학교(0.5)의 4배, 고등학교(0.3)의 7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다 큰 문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조사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YTN)」

과도한 사교육 몰입 교육으로 놀지 못한 아이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로인한 부적응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분출되어 해가 갈수록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비단 놀이 부재의 피해는 초등학교시기 뿐만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영향을 미친다. 즉 '놀줄 아는 어린이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 내용이다. 이는 인성과 지능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초등학교 시기에 놀이는 중요한 교육의 발달과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다수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놀줄 아는 어린이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놀이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놀이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등 전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합심해 아동의 놀이 시간을 늘리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단위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청소년단체"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즉 학교 정규 교육과정안에 동아리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단체 활동 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아람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 문화활동, 민속놀이활동, 공동체놀이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안에서는 물론이고, 학교밖에서 충분히 놀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아람단을 운영하는 학교는 48%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아예

청소년단체 자체가 없는 학교도 20%를 넘는 현실이다. 이제 놀줄 아는 건강한 어린이를 최대한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단위 학교가 앞장서서 노력할 때이다.

둘째, 학교안과 밖에서 어린이들이 열심히 뛰어놀수 있게 일과시간을 놀이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것이다. 아침활동시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을 최대한 놀이시간으로 확보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 수업시간에도 다양한 놀이학습방법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놀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와 주말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여 어린이들이 최대한 많은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미래 학자들은 「**통섭적 인재, 협업형 인재, 네트워크형 인재**」를 미래 인재상으로 손꼽고 있다. 이러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는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놀이’이다. 즉 ‘**놀줄 아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학교부터 공간, 시간을 새롭게 놀이중심으로 디자인하고 학교안과 밖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여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놀이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 Ⅲ. 청소년단체 활동의 발전방안

#### 1.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는 등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학교 교무행정업무에서 점차 폐지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1만명이상의 시민들이 업무분장 폐지에 대한 시정 요구 의견을 청원하였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부서를 통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회신 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는 서서히 학교업무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배제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분장 제외라는 단 한 장의 공문에 의해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15개 인정 청소년단체는 대부분 신입단원 대폭 감소라는 공통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 아람단 통계에서 밝혔듯이 신입단원수가 전년도 대비 하는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80%까지 신입단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은 공멸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 2.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기 극복 방안

### 가. 청소년지도사 배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의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예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방안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만 된다면 가장 좋은 학교 현장의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나. 방과후학교 운영(안)

청소년단체 활동 역시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그 운영방법이 학교내 방과후학교 사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전환하여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지도교사역시 강사를 선발하여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방과후학교처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좋은 대안이지만 전문적인 강사의 확보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도움없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다. 지역대 활동으로 전환(안)

학교단위 활동조직을 지역단위로 전환하여 아버지회라든지, 지역봉사활동가들이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성공적으로 지역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방안이다. 과도기적으로 전환시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청소년단체의 성격상 지역대로의 전환은 적극 추진해야 할 발전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순서

1. 청소년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2. 4-H회의 운영 형태 및 시사점
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단체 운영 방안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청소년단체의 태동과 발전과정

**청소년단체 활동의 태동**

- 우리나라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19세기 말엽 청소년들의 개화, 자주, 자강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03 기독교청년회(YMCA)와 1908년 청년학우회(흥사단의 전신)가 활동을 시작했고, 1912년과 1913년에 YMCA연맹과 흥사단이 각각 창단되어 활동을 촉진했다.

Copyright ©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청소년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 ● 학교 중심의 동아리 활동으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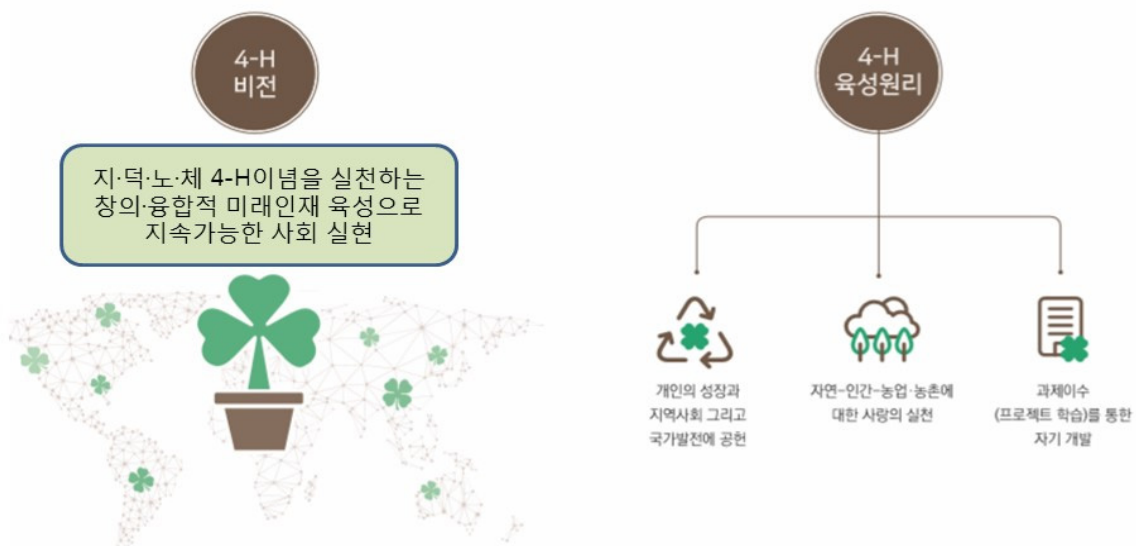
- 과거 지역사회 중심에서 학교내 동아리활동으로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활동범위가 축소됨
-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제 축소 및 폐지로 인한 지도교사 유인책 부족
  - 일반 체험학습과 차이가 없으며,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승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

### ● 열악한 재정과 취약한 운영구조

-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가짐
- 재정난 극복을 위한 위탁사업에 집중하는 경우 발생
- 지도자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도 열악한 경우가 많음.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의 비전과 육성원리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의 육성단계별 활동목표

육성단계	활동목표	주요활동과제
<p><b>유소년 (초등)</b> 만 7~12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덕목 함양</li> <li>▶ 리더십 함양</li> <li>▶ 인간 / 환경 / 농업 및 자연 친화적 태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인성교육</li> <li>▶ 동식물기르기</li> <li>▶ 도농교류체험</li> <li>▶ 과제학습과 교육행사</li> </ul>
<p><b>청소년 (중고)</b> 만 13~18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li> <li>▶ 청소년리더십 배양 및 자연·인간·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진로교육</li> <li>▶ 도농교류체험</li> <li>▶ 과제학습과 교육행사</li> <li>▶ 국제교류</li> </ul>
<p><b>대학4-H</b> 만 19~29세 대학재학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과 국가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로의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진로교육</li> <li>▶ 도농교류 및 농촌봉사</li> <li>▶ 과제학습과 교육행사</li> <li>▶ 국제교류</li> </ul>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의 활동 현황-1

### 국회 토론회 개최



2019 전국학생 모의국회(중고등학생)



2019 청년미래비전토론회(대학생)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의 활동 현황-1

## 메이커 프로젝트 경진

No	항목 / 팀명	주요내용 / 내용	프로젝트 사진	No	항목 / 팀명	주요내용 / 내용	프로젝트 사진	No	항목 / 팀명	주요내용 / 내용	프로젝트 사진
1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비행기, 비행기 제작방법으로 비행기 만들기		11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지름 줄 손잡이사탕을 활용한 수직정원		21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공간의 활용을 통한 미니 정원 만들기	
2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2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2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3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3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3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4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4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4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5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5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5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6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6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6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7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7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7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8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8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8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9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19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29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10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친환경 농산물 포장용 친환경 포장지 만들기		20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휴대용 미니 선반을 제작		30	신원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2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원초등학교 4학년 4반	수제 미니 정원 만들기	

Copyright © DIGITAL SEQUOIA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 활동현황 - 2

## 학교급별 프로그램 참여현황(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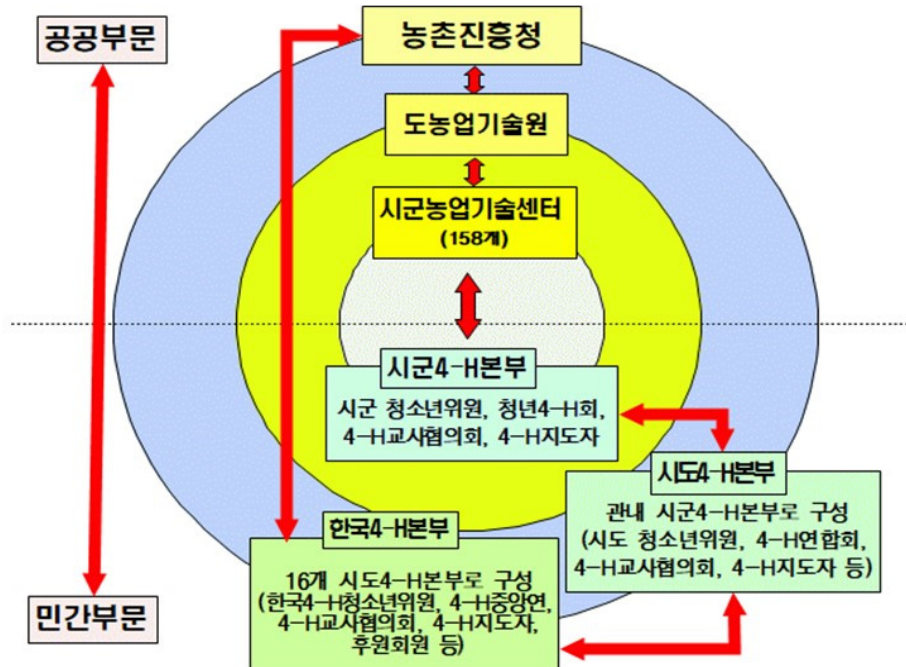
학교급별	참여 프로그램수	연간 참여횟수	주요프로그램(비율, %)
초등학교	7.0	42.9	농업체험(67.2), 예능문화(60.9), 4-H이념(58.7), 체력증진 활동(54.7), 식품관련활동(52.4), 학습활동(50.8), 진로개발(47.6) 문화탐방(46), 야영활동(46), 봉사활동(44.4)
중학교	5.0	14.0	농업체험(68.9), 야영활동(55.2), 예능문화활동(46.3), 4-H이념(39.6), 진로개발(36.4), 문화탐방(35.3), 학습활동(31.1), 유해환경감시(29.3), 봉사활동(29.1)
일반고	4.9	13.3	4-H이념(66.7), 야영활동(64.3), 농업체험(48.8), 예능문화(43.4), 학습활동(43.2), 문화탐방(35.7), 체력증진(29.3), 보아사활동(26.2), 진로개발(24.1)
특성화고	5.1	21.0	농업체험(72.5), 4-H이념(51.2), 야영활동(42.3), 체력증진 활동(40.3), 봉사활동(38.8), 학습활동(37.5), 예능문화(35.2), 진로개발(33.3), 식품관련(29.1), 발명창작(28.1)

출처 : 2018년 학생4-H회원 활동실태조사, 한국4-H본부

Copyright © DIGITAL SEQUOIA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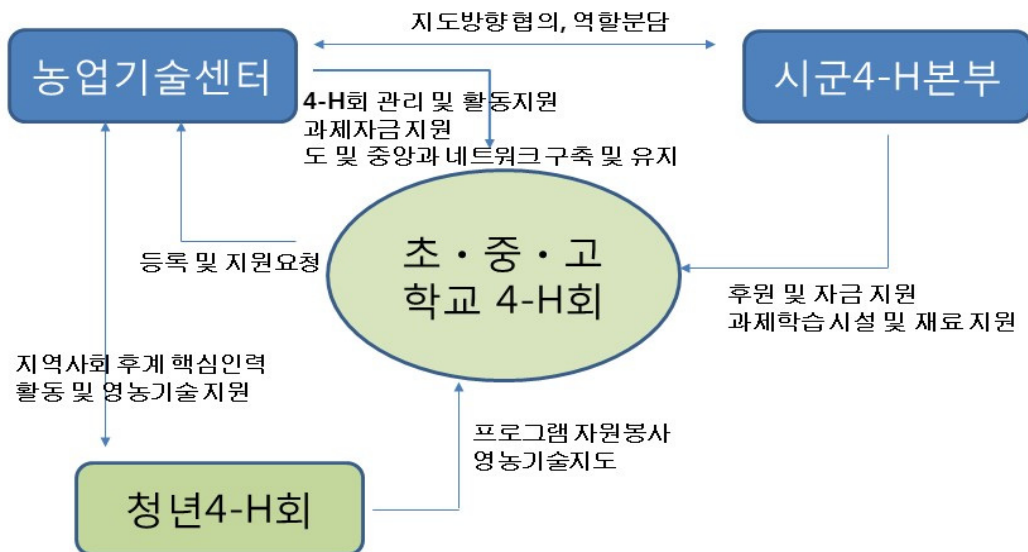


## 4-H회의 육성체계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회의 육성체계(시군)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육성체계의 시사점 1

###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육성체계 구축

- 4-H청소년지도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이며, 공공 행정기관 책임하에 4-H회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후계농업인력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벗어나 지역사회 청소년교육사업으로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확산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청소년단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음.
- 학교4-H육성을 위한 민간단체 및 청년4-H회원의 네트워크 및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관련 과제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4-H육성체계의 시사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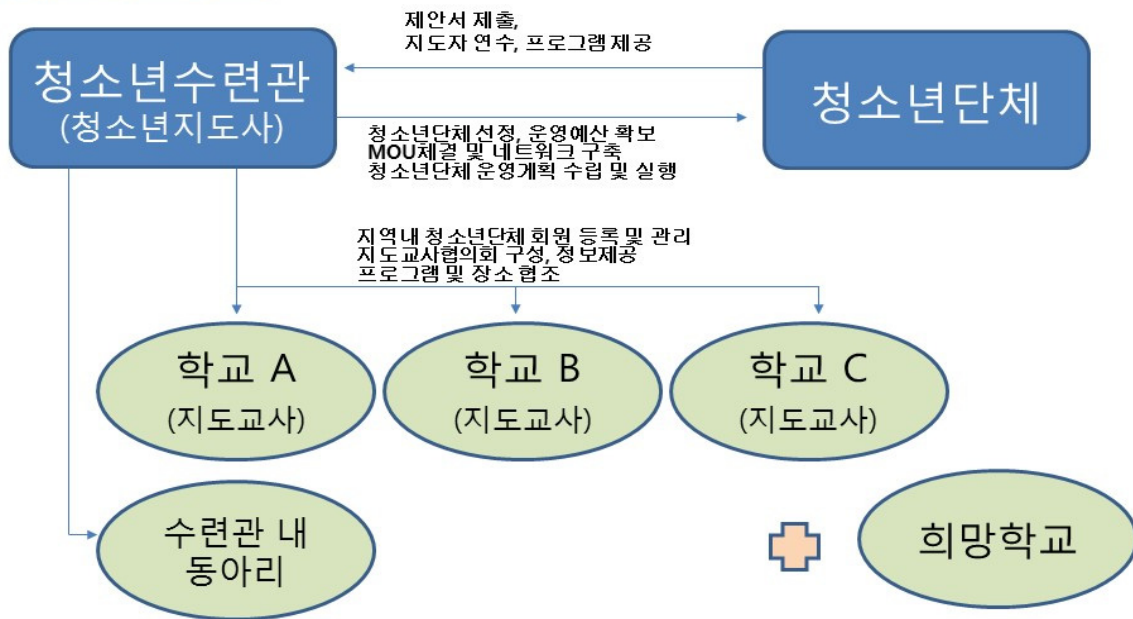
### 문제점 및 한계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는 4-H회 담당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개는 신규 직원으로 청소년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전문성도 다소 결여되어 있음.
- 학교4-H회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지역이 일부 존재함.
- 지자체장 또는 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4-H청소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의 한계로 대도시 지역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확대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하는 육성체계 구축 1

### 개요 및 흐름도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하는 육성체계 구축 2

### 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단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li> <li>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발전방안 연구</li> <li>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단체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li> </ul>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청소년단체 육성의 거점 역할</li> <li>청소년단체 제출 제안서 검토 및 지원 청소년단체 선정</li> <li>시군내 청소년단체 회원 등록 및 중앙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li> <li>'청소년단체 지원 및 활성화' 체계 구축</li> </ul>
학교 (지역내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단체 선정 참여</li> <li>청소년단체를 학교 동아리로 운영</li> <li>지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참여 및 회원 지도</li> </ul>
청소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제안서 작성 및 제출(→지자체, 수련시설)</li> <li>청소년지도사 및 지도교사에게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제공</li> <li>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제공</li> </ul>

Copyright © DIGITAL SEQUI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하는 육성체계 구축 3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청소년단체 육성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을 거점으로 지역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기대 및 지역내 수련시설의 위상 제고
-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
  -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단체를 지도하고, 단체 제공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 가능
- **교사의 청소년단체 지도 업무 경감**
  - 현재 지도교사의 업무중 상당부분을 청소년지도사가 맡게 됨에 따라 학교 및 지도교사의 부담 경감
- **청소년단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회원 확보에 기여**
  - 단체 활동에 대한 재정비 및 수련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회원확보 및 단체 발전 도모

Copyright ©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질의 및 답변

**Of the Youth.  
By the Youth.  
For the Youth!**

DIGITAL SEOUL CULTURE ART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I. 비행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조미란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관장)

**II.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

이미자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사무처장)

**III.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  
(4-H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본부장)



# 비형식교육 논의로 보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과 시사점

조미란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관장)

염진수 이사장님께서 발표해주신 경험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현장의 현실과 대안 등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990년에 상영됐던 ‘죽은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페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영화에서는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으며, 주인공인 존

키팅 선생은 이 말을 통해 대학입시나 좋은 직장 같은 미래를 위해 학창시절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중요한 순간임을 일깨워주었다. 정규 수업시간에 시를 암송하고 공을 차게 했으며 걸으면서 시를 만들어 보기도 했던,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던 수업방식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비형식교육의 형태임을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교육의 구조가 얼마나 변화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어언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미교육협회(NEA)등 교육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핵심학습능력인 4C는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협력(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이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WEF(World Economic Forum)는 매년 전 세계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이하 GCR)를 발간한다. 2019년 보고서<sup>11)</sup>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경쟁력 순위에서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으나 교육관련지수에서는 비판적사고교육 항목이 95위로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별 학생수 비율도 57위로 주입식,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이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학교교육을 원망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교육의 또 다른 지원기관인 청소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11)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

2009년 12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고 교과 이외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네 개 활동영역으로 구분해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중학교의 45.8%인 1,470개교가 자유학년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으로 구성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기관과 학교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다.

또한 학력중심이 아닌 재능중심인 미래지향적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던 배움을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로 펼쳐, 삶과 삶을 일치시키는 전인적 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9년 현재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학력을 신장시키고,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 등의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연간 예산액도 각 자치구별 15억 이상으로 총 383.1억원의 예산이 25개 자치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과정의 일부를 지역과 협력함으로써 제도 교육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활동현장이나 학교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비형식교육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기관에서도 이런 고민은 늘 존재한다. 환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단위사업별 환류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제발표자의 우려와 같이 청소년 활동 현장에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가 지도자들에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라는 제도적 위협에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내용에 중심을 두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지 못하고 단기성, 정량적 목표달성에 급급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정책과제의 일부로서 참여자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재구조화 하기 위해 PBL(Project 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성과측정 형태의 연간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청소년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성장노트(연구자, 권일남)를 도입, 기관별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 로그를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효과성 분석 및 미래진로를 위한 정당한 스펙쌓기의 모델을 소개하

기도 하였다. 아직은 시작단계인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과거 국제성취포상제와 같이 또 하나의 업무과중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범적 사례들로 확대, 양산 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학교의 기대와 청소년기관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청소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교에서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진로나 문화.예술 활동 등 일부에 국한되며 교과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학교만의 독점적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특히 진로활동의 대부분은 강사 파견형태로 이어지면서 청소년센터가 마치 인력중개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교는 프로그램의 회기도 단회기성을 요구하여 지속적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거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프로그램 내용도 지구 공동의 문제나, 현실적 사회문제 또는 담당지도자의 가치나 철학이 담긴 의미있는 활동이라기 보다는 단순 체험활동 중심의 흥미 위주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센터는 지역내 청소년활동의 플랫폼으로서 평생학습 문화정착 및 청소년활동의 중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수많은 대학생 봉사자, 지역인재들을 청소년활동의 훌륭한 자원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자유학년제 교과수업과 연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동아리 육성을 전담할 수 있게 이들의 역량개발에 앞장서면서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의 장을 열어야 한다. 또한 시립청소년센터에 배치된 청소년코디네이터의 순기능을 강화시켜 학교와 지역, 청소년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로 활용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자치구의 마당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각 기관별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 연결지어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영역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설 수 있고 마을 결합형 새로운 교육 형태가 만들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축과 외부 청소년활동 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등재 금지가 가져오는 청소년 활동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내에 포함될 경우에만 생기부 기재가 가능하고 학교밖에서의 모든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를 금하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해당항목이 삭제되면서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은 대학 진학시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청소년활동이 대학입학시에 가산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부

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본인의 진로나 봉사를 위한 노력에 아무런 보상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구태여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이미 청소년센터에서는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상의 훈격이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시장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대회나 활동에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한별단 등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에서 봄이 일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제복을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보면 뭔가 특별해 보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청소년 활동가로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인사 평정시에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조항을 삭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청소년활동 현장의 생태환경은 점점 위태롭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에 2020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초.중.고의 의무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이 포함된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실적 주제를 교과에 편입하는 것이 서구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그 중심에 청소년활동이 그리고 청소년기관이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철학과 운동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노사피언스 경제학의 저자 전승화는 2027년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자 가장 큰 생산자 세대로 부상할 청소년들은 우리시대의 경제방식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치창출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가?

영화 속 존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경제, 법률, 의학, 기술 등은 삶의 필요요소이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시와 아름다움, 사랑, 배려와 나눔 등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라”고 외친다. 그 외침이 포용적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현장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학교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안 토론문

이미자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사무처장)

## I. 들어가며

고승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해주신 내용 전반에 대해 공감한다. 발제자는 청소년단체활동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적 연관성 및 근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입시교육 위주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의 문제로 나타난 각종 청소년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 교육과 함께 해 온 청소년단체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청소년단체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거시적인 교육 정책과 철학의 부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 청소년단체활동의 위축은 그동안 국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아온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쳐 지역 사회 각종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 II.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일방적 조치에 따른 청소년단체활동의 위기

지난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활동)이행 계획 안내 관련 공문을 통해“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 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고 일선 학교에 일괄 통보했다.

교사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명분아래 교원 노조와 협의사항을 이행시키고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야기할 수 있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런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일방적 조치는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공청회과정 한 번 없이 교원과 교육청의 일방적 합의 후 시행된 정책이라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일방적 정책은 단체활동 지도교사 및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참여권을 통제된 정책으로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박탈하였으며, 이와 같이 일선 학교에 시달된 공문으로 인해 희망 교사에게 조차도 이미 청소년단체 업무는 배제된 상태로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 위기에 놓여 있다.

### Ⅲ. 청소년단체활동의 법률적 근거와 필요성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통한 건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청소년단체가 공교육과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 ▷ 청소년기본법(1991) 등 관련법 제정을 통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역할과 지원
- ▷ 교육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단체활동을 교육 과정으로 정식 인정
- ▷ 입시교육 현실 속에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하는 체험활동으로 지속적 자리매김

#### 〈청소년단체활동의 법률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제시 청소년단체활동(교육부 자료)>

**11**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훈 령**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별도로 기록한다.
-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 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⑥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영역	활동	활동 내용(예시)
동아리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 등
	예술 · 체육 활동	• 음악활동 - 성악, 합창, 뮤지컬, 오페라, 오케스트라, 국악, 사물놀이, 밴드, 난타 등 • 미술활동 - 현대 미술, 전통 미술, 회화, 조각, 사진, 애니메이션, 공예, 민화, 벽화, 디자인, 미술관 탐방 등 • 연극·영화활동 - 연극, 영화 평론, 영화 제작, 방송 등 • 체육활동 - 씨름, 태권도, 택견, 전통무술, 구기운동, 수영, 요가, 하이킹, 등산, 자전거, 댄스 등 • 놀이활동 - 보드 게임, 공동체 놀이, 마술, 민속놀이 등
	학술 문화 활동	• 인문소양활동 - 문예 창작, 독서, 토론, 우리말 탐구, 외국어 회화, 인문학 연구 등 • 사회과학탐구활동 - 답사, 역사 탐구, 지리 문화 탐구, 다문화 탐구, 인권 탐구 등 • 자연과학탐구활동 - 발명, 지속 가능 발전 연구, 적정 기술 탐구, 농어촌 발전 연구, 생태 환경 탐구 등 • 정보활동 -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신문 활용 등
	실습 노작 활동	• 가사활동 - 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제과·제빵 등 • 생산활동 - 재배, 원예, 조경, 반려동물 키우기, 사육 등 • 노작활동 - 목공, 공작, 설계, 제도, 로봇 제작, 조립, 모형 제작, 인테리어, 미용 등 • 창업활동 - 창업 연구 등

#### IV. 경험을 통해 입증된 청소년단체활동의 효과성

공동체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보고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입증된 대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청소년들의 전인적 교육에 기여

청소년단체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공동체 활동으로 청소년의 인성·품성 및 지적체의 균형 발달 도모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한편 창의적 사고능력·잠재능력 개발 및 올바른 국가관·윤리관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사회성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청소년기 각종 사회문제 발생 예방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기 인성교육 부재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폭력, 자살, 가출, 음주·흡연, 범죄, 각종 중독 등)의 예방 및 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기 건전한 여가문화 및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사회 봉사 의식 고취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의 향상

특히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을 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참여는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며, 리더십생활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직접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이렇듯 장기간 효과성이 검증된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한 학교 행정에 불편함과 부담을 초래한다면 오히려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해야 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가 전제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V. 맺으며

### 학교청소년단체활동의 교육적 연계 방안

#### 공교육 속 인성 교육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관련한 교육 및 사회 환경에는 급격하고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는 나라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에 직면해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서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는 가정교육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공교육이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생각된다. 그러한 연유로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식교육은 사설 학원에서 인성교육은 청소년단체가 전담해 오지 않았는가? 학교에서 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해 준다면 청소년단체는 학교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시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비약적으로 언급해 보면 학교는 소수의 "우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일 뿐 그보다 더 많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고 있는 공동 대합실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정보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청소년들의 본능을 쉴 틈 없이 유혹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으로선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기엔 너무나 무기력한 말뿐인 교육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여겨진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향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육 환경과 교육 철학에 대한 심각한 반성 위에 평범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 시장원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선 청소년들을 규율과 질서, 협동과 희생, 책임감 등에 충만한 창의적인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길러낼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경쟁적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공교육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흡연, 음주 등 청소년들 일탈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점이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을 수용하여 대자연속에서 체험을 통해 이뤄내는 청소년단체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 주역으로 키워야하며

현재까지 인성교육에 효과성이 검증된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큰 청소년단체활동이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 함께 가야만 한다.

# ‘지역사회조직화와 청소년단체의 역할 (초기 4-H사례를 중심으로)’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본부장)

## □ 시민사회의 시대 21세기

현재 많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은 21세기를 NGO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통치의 기제인 정부가 모든 것은 계획하고 통재하던 근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집단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전 시민사회의 영역이 정부의 하위영역이 아닌 오히려 정부를 압도하는 영역으로 성장했음을 역설하는 표현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독립전쟁이후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이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다 우수한 참여민주주의 꽃 피운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미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다양한 지역마다 발달한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 즉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시민사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이나 환경, 교육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을 한 결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는 데는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지방분권이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고 1999년에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점차 발전하였고, 여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는 21세기 들어 인터넷의 엄청난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그동안 정치와 사회문제 등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면서 제2의 계몽주의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 □ 청소년단체의 발전과 위기

청소년단체 또한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초창기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빈약한 학교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중심으로 초고속 성장을 성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전쟁이후 폐허 속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청소년단체활동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의 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교육에 남달랐던 학부모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그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져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전부터 학교사회에서 생겨난 청소년단체활동의 탈 학교화 주장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진출하면서 **일반 체험학습과 차이가 없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승진에 있어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교원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의 탈 학교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정책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 폐지(교육청)”, “단체활동지도교사 업무분장 제외”(서울시교육청),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축소·폐지(교육부)”입니다.

그러면서 각 교육청은 대안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수립 정책인 “혁신교육지구” 내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숙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였고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학교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협업해온 청소년단체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 지정운영(시범)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기관·시설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변화로 청소년단체는 학교 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단체활동 이원화 발전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 조직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지역사회조직화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그동안 급성장한 참여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공고히 하고자 조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코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규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의제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제 중에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청소년 즉 자녀의 성장과 교육 그리고 미래진로에 관한 것으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중의 첫 번째는 학교의 출세우기식 입시교육과 형식적인 진로지도 그리고 날로 악화되는 청소년문제에 지친 주민들에게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성장과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진로지도 문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제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을 묶어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의 두 번째 역할은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로서 끊임없이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관련 의제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운동성을 유지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과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정책의 수혜를 보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초접촉사회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가교역할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의 민간영역과는 단절된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민간시민단체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에 중점을

두고 시민사회운동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협업이나 업무 노출을 꺼리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민간영역에도 공공영역에 대한 불신과 이해부족으로 상호 협력에 있어 상당부분 장벽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학교 내에서의 단체활동 추진과 중앙정부나 지자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위탁·보조사업 추진, 각종 위원회 참여 등)를 통해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어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화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공영역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표자의 4-H운동의 육성체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4-H운동의 성공은 공공영역인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와의 고도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에서 각 지역의 4-H는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에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관련공공기관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 지역사회 조직화의 성공사례인 청소년 4-H운동의 의미

지역사회 조직화가 우리사회발전에 있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미산마을공동체'입니다.

SK그룹이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는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마을공동체'에서는 1,0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국내 처음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육아를 공유하고,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에선 초·중·고등학교 교육하고, 두레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먹거리를 공유·판매할 뿐만 아니라, '두루'라는 이름의 마을화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 식당, 극장, 방과 후 어린이집 등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핫한 이슈 중의 하나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의 지역사회 주민들은 버려진 도시공간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키며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는데 기여하고 있어 도시재생의 선진모델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기득권층 자녀들의 대학입시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분담하는 홈스쿨링 방식

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조직화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적인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가 발달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조직화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우리사회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인 청소년단체도 이제 이러한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조직화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4-H운동의 사례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피해 할대로 피해한 우리나라 60,70년대에 들불처럼 확산된 4-H운동은 산간벽지의 농어촌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생활개선과 발전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의 확산과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내린 튼튼한 운동의 뿌리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활동의 개발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어촌 구석구석에는 4-H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미래의 농어민 후계자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조직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4-H운동의 성과는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의 탈학교화’로 촉발된 단체활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청소년단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제2019년도 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

- 발행일 : 2019년 11월 21일
  - 인쇄일 : 2019년 11월 22일
  - 발행처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 인쇄처 : 형우디앤피  
(02)2263-3887
- 

\* 이 발표·토론집에 수록된 글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2019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권일남(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 1.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이해

## 법적 개념에서 나타난 오류

균형성장이라 함은?

###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청소년의 근로가 되지 못함)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 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균형성장  
에  
필요한  
활동이  
란?

소재의 정의는? 적어도 청소년을 위한  
활동의 소재는 범주화하기가 불가능함

일단 정의에서부터 명료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 2. 청소년활동의 본질이란?

이러한 것들 이외에 강조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생각해 보기 : 활동의 성과

- 몇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는가?
- 몇건의 프로그램을 수행했는가?
-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인증 등)?
-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했는가?
- 몇회기의 활동을 하였는가?

왜 우리는 활동 또는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회의의 사진을 찍고, 출석부명부를 만들고, 회계자료를 붙이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의 활동성과를 담보(상부보고용으로)해낸다고 믿는가?

## 본질을 찾아야 하는 이유

**본질 :**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이자 원인이 되는 것’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

- 청소년활동의 근본이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청소년활동이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은 활동의 양, 횟수, 활동참여자, 활동비용 등일까?
-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위는 이러한 결과 만들기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평가때문)인가?

# 본질을 고민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의 전개

청소년활동을 통한 성장지원의 효율성을 논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어에 대한 불편감 노출

1. **육성**
2. **수련**
3. **지도**



청소년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불편함  
(진정 억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도자도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 3.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한계요소

## 1) 본질찾기가 가능한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중심이어야 함**

- 청소년중심이라 함은?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지향점은?
- 자율, 참여, 주체적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설명할 방법은?

**청소년정책과 제도는?**

- 5년마다 변화하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 : 육성-역량-자율, 참여 등
- 지속적, 조직적, 목적지향적에 위배
- 계획적, 협동적이지 못함
- 4차 산업혁명 등 외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알맹이 부재
- 인증, 신고제는?

**청소년활동 자체내에서의 자기반성과 본질 찾기 미흡**

**[학술적으로도 치열한 논쟁 미비]**

# 청소년활동의 용어가 혼재되면서 혼란은 가중됨



청소년활동은 부처나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  
됨

## 2) 본질찾기를 가로막는 요소

### (1) 양적 평가지표

- 양적 평가는 활동의 단순화, 서열화, 획일화를 유도하는 가장 나쁜 병폐
- 전문성을 포기한 단순성으로 인식의 지각화를 이룸
- 균형성장으로 모토로 한 의미구현의 명료성 미비

## 2) 본질찾기를 가로막는 요소

### [2] 법적 개념에서도 오류상존

- 수련활동 :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기량과 품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 문화활동과 교류활동 : 단순히 함축적 의미인가?  
**학술적 의미라면 가능하지만 법적 의미인데..**
- 수련활동은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되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하지만 교류나 문화 활동은 청소년지도자가 없어도 되는 활동인가?

## 2) 본질찾기를 가로막는 요소

### (3) 청소년활동가치에 대한 현장과 학술적 동의어 부재

- 균형성장 → 도달점 행동(청소년) **(목적)** → 이를 달성하게 하려는 활동의 성과 **(목표)** → 행위의 연계 **(지도)** → 실행과 성과의 판단 **(평가)** → 청소년과 지도자의 균형성장에 대한 함의 : **일관성 부재**
- 활동의 행위에 대한 성과그침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동의요소의 부재
- 청소년활동은 부적응, 변화요청의 대상에 맞춤형 성과를 줄 수 없는가? : 청소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해결중심의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 2) 본질찾기를 가로막는 요소

### [4]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문화 부재

- 청소년시설평가요소 : 각 시설에 중장기 발전계획, 연간계획의 수립과 실행요소가 있는지 요구함
- 그런데 국가의 청소년활동정책을 통틀어 5년 주기의 최소한 예단이 가능한 정책방향은 서 있는가?
- 형식적, 포괄적 청소년정책5개년계획은 있지만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영역인 활동정책의 중장기 계획은?

## 4차 청소년정책

- 꿈을 키우는 청소년
- 희망을 더하는 가족
- 밝은 미래사회



-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
- 시민역량과 인성
-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 5차 청소년정책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 역량함양
- 미래핵심인재
-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
-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

## 6차 청소년정책

-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 미래를 여는 청소년
- 청소년을 존경하는 사회



- 참여와 권리
- 주도적 활성화

**정책목표에 맞는 청소년성장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입증  
해내는 학문적 노력미흡**

## 2) 본질찾기를 가로막는 요소

### [5]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활동과정의 탐색적 방법론 부재

-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정과 절차의 함의가 부재
- 동을 제공하면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행동과 성장의 모습을 어떠한 형식으로 탐색해 낼 것인가의 공통분모 필요

# 4.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위해..

## 1) 청소년균형성장의 시금석만들기

- ❖ 청소년균형성장 과 청소년활동의 보편적 용어나 의미에 대한 수혜자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균형성장의 개괄적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능력과 실천적 사고 및 행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얻는 의미로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을 전환시키기
- ❖ 청소년활동이 갖는 자기성장의 배경을 토대로 도전과 모험, 문제해결과 탐색, 분석적 사고에 기반한 실행적 능력은 물론 공동체, 협력, 나눔과 배려 등을 구현한 실제적 과제를 이행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청소년활동의 가치 재정립 요망
- ❖ 진로, 동아리, 참여, 문화, 교류, 환경 등 구체적 과업중심, 사업중심의 판단이 청소년활동의 의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 사고발휘

# 4.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위해..

## 2) 청소년의 성장을 판단하는 준거만들기

- ❖ 청소년활동이 지도자나 활동제공자의 관점마다 다른 점이 청소년활동의 장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활동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공통적 의미를 수반해내는 행위의 귀결점은 존재해야 함
- ❖ 청소년활동의 본질은 청소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론의 체계성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나름 공통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활동시 청소년중심 분석 요소 :  
(1) 활동경험에 돌입 -> (2) 활동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 -> (3) 실제 활동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구체적 합의점 -> (4) 앞으로 지속화할 방향성

모든 활동마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준요소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요소 추출(결과화)

# 4.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위해..

## 3) 청소년의 성장기록화하기

- ❖ 우리는 매년 엄청난 양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편적으로는 사업이라는 용어로, 제공되는 수많은 청소년활동으로 참여청소년들이 많다는 데 위안을 삼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지도사는 사업제공자로서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이다.
- ❖ 청소년활동의 근본은 청소년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년 초** 보다 **매년 말** 자연스러운 성장을 상회하는 청소년의 비교결과를 판단하는 준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 ❖ 우리 시설을 거쳐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보이거나 스스로 참여행위를 기획하고 나누며 타인과 조직을 위해 하나씩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의 성장모습을 알 수 없다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4.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위해..

## 4) 양적 성과에서 질도 양화하는 평가전문화

- ❖ 청소년시설에 투입되는 공적 예산은 시설의 공공성을 양적으로 판단하는 준거라고 말한다. 곧 성과관리라는 미명으로써..
- ❖ 하지만 성과관리가 반드시 양에 의해서만 공정성시비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양의 판단도 질적으로 변화될 여지는 얼마든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이 또 다시 청소년지도에 회귀하는 선순환구조를 평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의 판단준거가 필요하다. 전문화의 핵심은 진단이어야 한다(적어도 우리의 경우에서는). 왜 다른 분야의 진단은 당연시하며 청소년활동분야의 진단은 도외시하는가? 모든 진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진단의 다양성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4. 청소년활동의 본질찾기를 위해..

## 5) 청소년활동정책의 예측세우기

- ❖ 청소년시설평가의 첫 지표는 중장기 및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이다. 그만큼 어떠한 기관목표, 운영방향의 제시가 중요함을 말한다.
- ❖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시설의 중장기 및 연간사업계획이 존재하고 있는가? 청소년시설에 운영방향, 예산투입, 핵심지원의 대안, 청소년의 활동전개를 위한 예측가능한 논의가 있는지를 묻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러한 방향성이 없으면 결국 청소년활동은 사람중심, 특정한 관심사 중심으로 변질되어도 문제를 삼을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게 된다.(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상과 그러한 인재상의 구현에 청소년활동의 추진방향을 연계하겠다는 당위성이 곧 활동의 필요성이 되기 때문이다).
- ❖ 예측가능한 방향이 없으면 청소년활동은 사업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사업은 청소년활동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 몰두하게 된다.



감사합니다